Part 4

2025 장성군
사회지표별 결과

1 인구 항목
2 공통 항목
3 전라남도 항목
4 장성군 특성 항목

1. 인구 항목

1 - 1. 세대 및 인구(외국인 제외)

1 - 2. 성별 및 연령별 인구

1 - 3. 합계출산율 및 인구성장률

1 - 4. 생산가능인구 및 비율

1 - 5. 인구이동 및 순이동률

1 - 6. 성별 국적별 외국인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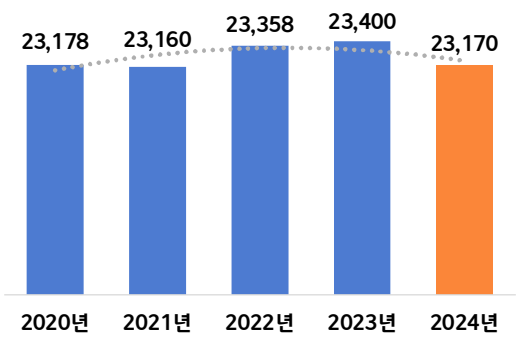
1 - 1. 세대 및 인구(외국인 제외)

2024년 장성군의 세대 수는 23,170세대

- **2024년 장성군의 주민등록인구는 42,026명**
  - 장성군의 '세대' 수는 23,170세대로 전년(23,400세대) 대비 230세대 감소함
  - 장성군의 '주민등록인구'는 42,026명으로 전년(42,543명) 대비 517명 감소함
- **장성군의 2024년 성별 인구 구성비는 남자가 높게 나타남**
  - 장성군의 성별 '인구 구성비'는 '남자' 51.3%, '여자' 48.7%로 '남자' 비율이 2.6%p 높게 나타남
  - '남자'는 21,548명으로 전년(21,892명) 대비 344명 감소, '여자'는 20,478명으로 전년(20,651명) 대비 173명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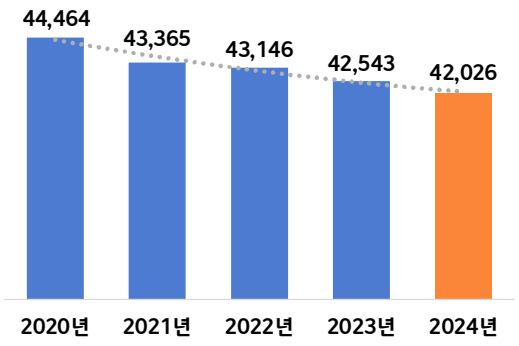
<< 세대 >>

(단위 : 세대)



<< 주민등록인구 >>

(단위 : 명)



세대 및 인구(외국인 제외) (단위 : 세대, 명, %)

구 분	세대	인구			구성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2020년	23,178	44,464	22,781	21,683	100.0	51.2	48.8
2021년	23,160	43,365	22,206	21,159	100.0	51.2	48.8
2022년	23,358	43,146	22,162	20,984	100.0	51.4	48.6
2023년	23,400	42,543	21,892	20,651	100.0	51.5	48.5
2024년	23,170	42,026	21,548	20,478	100.0	51.3	48.7

자료: 통계청, KOSIS「주민등록인구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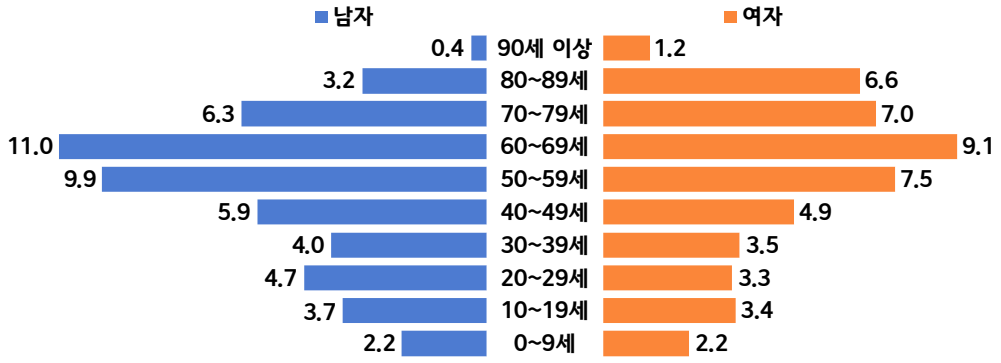
1 - 2. 성별 및 연령별 인구

장성 군민 5명 중 2명은 60세 이상

- **2024년 장성군에서 가장 많은 연령대는 60~69세**
  - 60~69세의 '인구'는 8,444명으로 장성군에서 가장 높은 '인구 구성비'(20.1%)를 차지함
  - 군민 중 70~79세는 13.3%, 80~89세는 9.8%, 90세 이상은 1.6%로 60세 이상의 군민은 전체 '인구'의 44.8%로 나타남
- **70세 이상부터는 여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2024년 성별 '인구 구성비'는 69세 이하의 연령대에서 '남자'의 비중이 더 높거나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70세 이상의 연령대부터는 '여자'가 '남자' 대비 높게 나타남

<< 성별 및 연령별 인구 구성비 >>

(단위 : %)



성별 및 연령별 인구 (단위 : 명, %)

구 분	인구	남자	여자	구성비	남자	여자
2024년	42,026	21,548	20,478	100.0	51.3	48.7
0 ~ 9 세	1,846	934	912	4.4	2.2	2.2
10~19세	2,964	1,534	1,430	7.1	3.7	3.4
20~29세	3,361	1,992	1,369	8.0	4.7	3.3
30~39세	3,166	1,684	1,482	7.5	4.0	3.5
40~49세	4,563	2,491	2,072	10.9	5.9	4.9
50~59세	7,302	4,153	3,149	17.4	9.9	7.5
60~69세	8,444	4,603	3,841	20.1	11.0	9.1
70~79세	5,601	2,665	2,936	13.3	6.3	7.0
80~89세	4,107	1,339	2,768	9.8	3.2	6.6
90세 이상	672	153	519	1.6	0.4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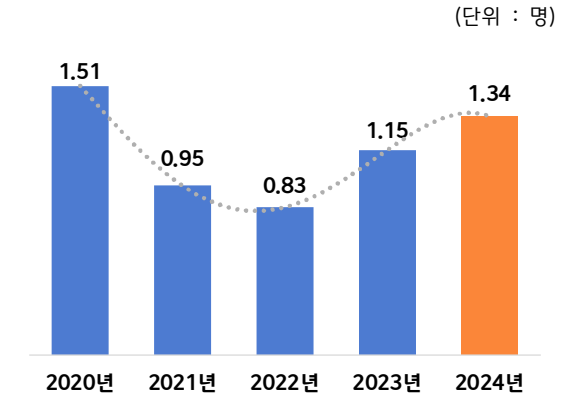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주민등록인구통계」
주) 외국인 제외

1 - 3. 합계출산율 및 인구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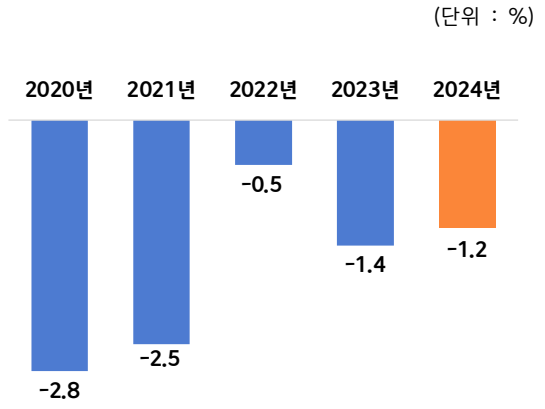
2024년 장성군의 (잠정)합계출산율, 인구성장률 증가

- **2024년 장성군의 (잠정)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평균 1.34명**
  - 장성군의 '(잠정)합계출산율'은 1.34명으로 전년(1.15명) 대비 0.19명 증가함
  - 장성군의 '(잠정)합계출산율'은 2022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2024년 장성군의 인구성장률은 -1.2%**
  - 장성군의 '인구성장률'은 -1.2%로 전년(-1.4%) 대비 0.2%p 증가함
  - 장성군의 '인구성장률'은 2020년 이후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는 추세를 보임

<< 합계출산율 >>



<< 인구성장률 >>



합계출산율 및 인구성장률 (단위 : 명, %)

구 분	인구	출생	합계출산율	인구성장률
2020년	44,464	260	1.51	-2.8
2021년	43,365	153	0.95	-2.5
2022년	43,146	126	0.83	-0.5
2023년	42,543	172	1.15	-1.4
2024년	42,026	-	1.34	-1.2

자료: 통계청, KOSIS 「주민등록인구통계」「인구동향조사」

주) 합계출산율(TFR)= $\sum_{i=15}^{49}(ASFR)_i/1,000$, 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수

주) 2024년 합계출산율은 통계청에서 공식 발표하는 수치가 아닌 잠정치이므로 실제 합계출산율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주) 인구성장률 = [(해당연도주민등록인구-전년도주민등록인구)/전년도주민등록인구]× 100, 전년비임

주) 외국인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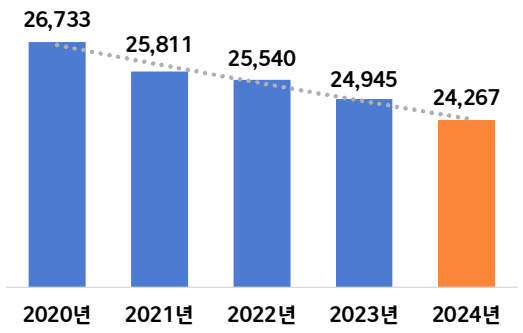
1 - 4. 생산가능인구 및 비율

2024년 장성군의 생산가능인구 24,267명

- **장성군의 생산가능인구 전년 대비 감소**
  - 2024년 장성군의 생산가능인구는 24,267명으로 전년(24,945명) 대비 678명 감소함
  - 연령대별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50~64세'(48.1%), '25~49세'(39.2%), '15~24세'(12.7%) 순으로 높게 나타남
- **50~64세의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
  - 2024년 '50~64세'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전년(47.5%) 대비 0.6%p 증가함
  - '15~24세'와 '25~49세'의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전년(12.9%, 39.6%) 대비 각각 0.2%p, 0.4%p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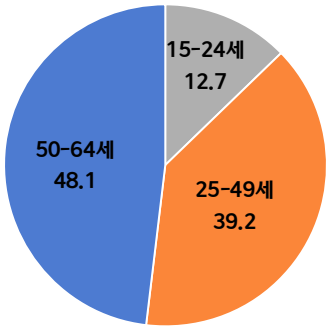
<< 생산가능인구 >>

(단위 : 명)



<< 연령별 생산가능인구 >>

(단위 : %)



생산가능인구 및 비율 (단위: 명, %)

구 분	계	15-24세	비율	25-49세	비율	50-64세	비율
2020년	26,733	3,766	14.1	11,437	42.8	11,530	43.1
2021년	25,811	3,494	13.5	10,595	41.0	11,722	45.4
2022년	25,540	3,363	13.2	10,308	40.4	11,869	46.5
2023년	24,945	3,221	12.9	9,870	39.6	11,854	47.5
2024년	24,267	3,074	12.7	9,521	39.2	11,672	48.1

자료: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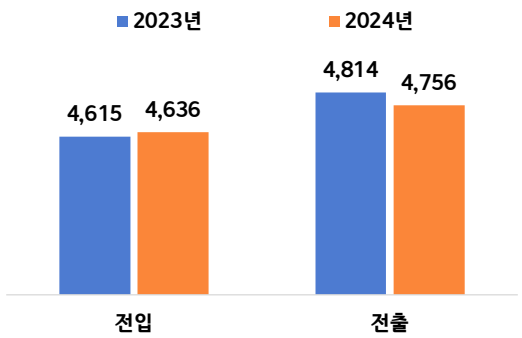
1 - 5. 인구이동 및 순이동률

2024년 장성군 순유출 인구 120명

- **장성군 전년 대비 전입 증가, 전출 감소**
  - 장성군의 '전입' 인구는 4,636명으로 전년(4,615명) 대비 21명 증가함
  - 장성군의 '전출' 인구는 4,756명으로 전년(4,814명) 대비 58명 감소함
  - 2023년까지 장성군의 '전입'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24년에 처음으로 증가함
- **2024년 장성군 순유출 인구 감소**
  - 장성군의 순유출 인구는 120명으로 전년(199명) 대비 79명 감소함
  - 장성군의 '순이동률'은 -0.3%로 전년(-0.5%) 대비 0.2%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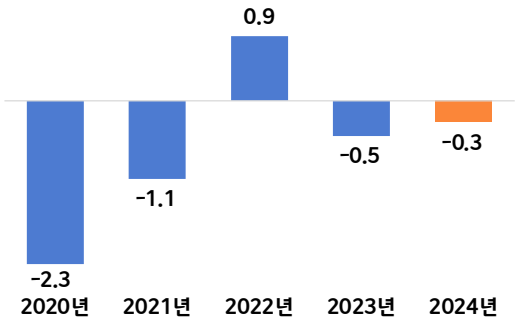
<< 전입 전출 인구 >>

(단위 : 명)



<< 순이동률 >>

(단위 : %)



인구이동 및 순이동률 (단위 : 명, %)

구 분	전입	이동률	전출	이동률	순이동	이동률
2020년	5,698	12.8	6,715	15.1	-1,017	-2.3
2021년	5,720	13.2	6,214	14.3	-494	-1.1
2022년	5,210	12.1	4,807	11.1	403	0.9
2023년	4,615	10.8	4,814	11.3	-199	-0.5
2024년	4,636	11.0	4,756	11.3	-120	-0.3

자료: 통계청, KOSIS 「주민등록인구통계」
주) 전입인구 = 시군 간 전입 + 시도 간 전입 + 시군구 내 이동
주) 전출인구 = 시군 간 전출 + 시도 간 전출 + 시군구 내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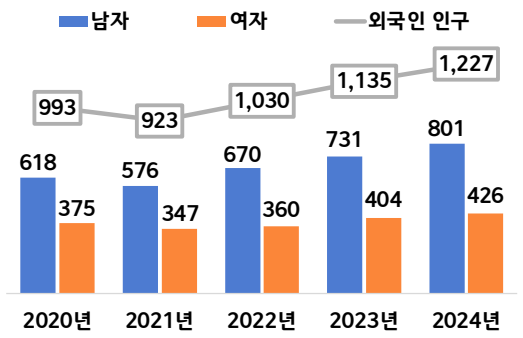
1 - 6. 성별 국적별 외국인 인구

장성군 외국인 인구 중 가장 많은 국가는 베트남

- **2024년 장성군의 외국인 인구는 전년 대비 증가**
  - 장성군의 '외국인 인구'는 1,227명으로 전년(1,135명) 대비 92명 증가함
  - 외국인 '남자'는 801명으로 전년(731명) 대비 70명 증가함
  - 외국인 '여자'는 426명으로 전년(404명) 대비 22명 증가함
- **외국인 인구 중 가장 많은 국적을 차지하는 베트남**
  - 2024년 장성군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외국인은 '베트남'(353명)으로 전년(315명) 대비 38명 증가함
  - '외국인 인구'는 '베트남' 다음으로 '캄보디아'(195명), '스리랑카'(136명)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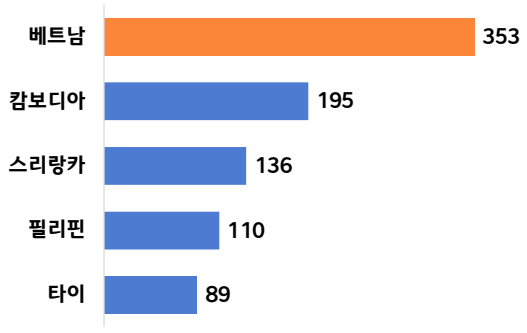
<< 성별 외국인 인구 >>

(단위 : 명)



<< 국적별 외국인 인구(상위 5개국) >>

(단위 : 명)



성별 국적별 외국인 인구 (단위 : 명)

구 분	외국인 인구	남자	여자	국적별							
				베트남	캄보디아	스리랑카	필리핀	타이 (태국)	네팔	미얀마	기타
2020년	993	618	375	319	156	107	106	44	46	35	180
2021년	923	576	347	282	154	99	96	63	36	35	158
2022년	1,030	670	360	293	165	118	96	62	55	46	195
2023년	1,135	731	404	315	185	117	116	72	69	65	196
2024년	1,227	801	426	353	195	136	110	89	80	68	196

자료: 통계청, KOSIS「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 2024년 하반기 기준
주) 2024년 외국인 인구는 전라남도에서 제공하는 잠정치로 실제 외국인 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공통 항목

2 - 1. 삶에 대한 만족감

2 - 2. 가구 월평균 소득

2 - 3. 소득 만족도

2 - 4.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 정도

2 - 5. 주거환경 만족도

2 - 6. 교통수단 만족도

2 - 7. 지역거주기간 및 정주의사

2 - 8. 일자리 충분도

2 - 9. 일자리 만족도

2 - 10. 교육환경 만족도

2 - 11. 여가활동 만족도

2 - 12.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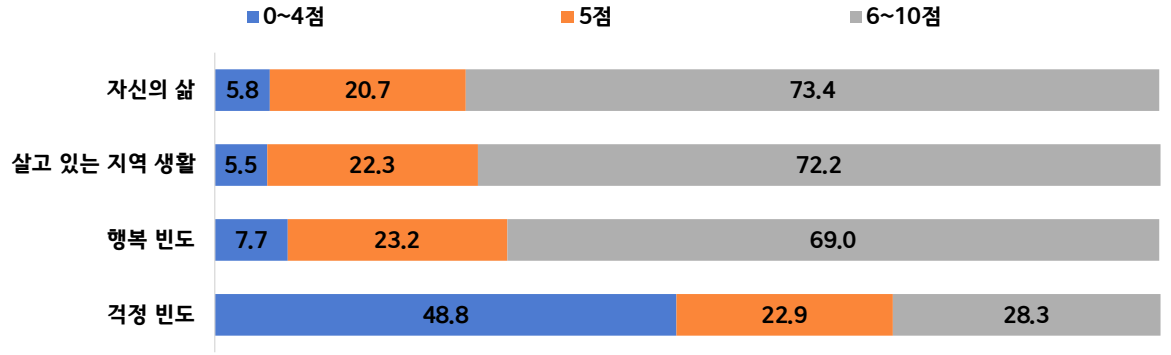
2 - 1. 삶에 대한 만족감

장성 군민의 걱정 빈도 대비 높은 행복 빈도

- **군민 10명 중 7명은 자신의 삶에 만족**
  - 자신의 삶에 대해 '대체로 만족(6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73.4%로 나타남
  - 살고 있는 지역 생활에 대해 '대체로 만족(6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72.2%로 나타남
  -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1점으로 전년(7.0점) 대비 0.1점 증가하였으며, 살고 있는 지역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0점으로 전년(6.9점) 대비 0.1점 증가함
- **행복 빈도 평균 점수는 6.9점, 걱정 빈도 평균 점수는 4.2점**
  - 행복 빈도에 대해 '대체로 행복(6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69.0%로 나타남
  - 걱정 빈도에 대해 '대체로 걱정하지 않음(4점 이하)'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48.8%로 전년(58.3%) 대비 9.5%p 감소함

<< 삶에 대한 만족감 비율 >>

(단위 : %)



삶에 대한 만족감 (단위 : 점, %)

구 분	만족도 평균	계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1) 자신의 삶													
2025년	7.1	100.0	0.5	0.2	0.1	1.7	3.3	20.7	12.2	17.3	20.0	10.7	13.2
2024년	7.0	100.0	0.1	0.4	0.7	2.3	4.4	15.6	15.3	17.9	18.8	11.3	13.2
2023년	6.7	100.0	0.6	0.7	1.1	2.6	3.8	26.0	12.6	16.3	17.8	7.9	10.7
(2) 살고 있는 지역 생활													
2025년	7.0	100.0	0.3	0.3	0.2	1.4	3.3	22.3	13.8	15.6	19.9	11.0	11.9
2024년	6.9	100.0	0.0	0.4	0.7	3.2	3.4	19.2	15.4	16.6	19.0	9.7	12.3
2023년	6.5	100.0	0.7	0.6	1.3	4.1	3.3	27.6	12.6	17.4	15.2	7.2	10.1
(3) 행복 빈도													
2025년	6.9	100.0	0.2	0.5	0.7	2.1	4.2	23.2	13.2	15.8	17.3	11.2	11.5
2024년	6.9	100.0	0.1	0.7	1.4	2.8	4.7	19.2	14.2	16.2	14.7	12.6	13.4
2023년	6.6	100.0	0.6	0.9	1.4	3.3	4.6	26.0	11.7	14.6	18.0	8.4	10.5
(4) 걱정 빈도													
2025년	4.2	100.0	8.7	8.3	10.1	11.6	10.1	22.9	12.1	7.8	5.5	2.0	0.9
2024년	3.7	100.0	12.1	9.6	14.8	13.0	8.8	19.4	6.6	7.5	4.1	2.5	1.4
2023년	4.0	100.0	9.5	8.9	11.6	12.6	10.6	22.6	6.8	7.7	5.6	2.1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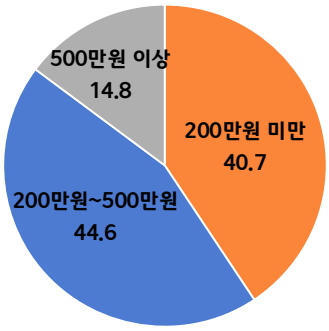
2 - 2. 가구 월평균 소득

장성 군민 10가구 중 6가구는 가구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상

- **절반 이상의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 이상**
  -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은 59.4%로 나타남
  -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은 14.8%로 전년(18.1%) 대비 3.3%p 감소함
- **가구 월평균 소득은 지역별, 성별 차이를 보임**
  - 지역별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은 서부권(66.3%), 중부권(61.8%), 광주인근권(56.6%), 북부권(44.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은 남자(70.3%)가 여자(33.6%) 대비 36.7%p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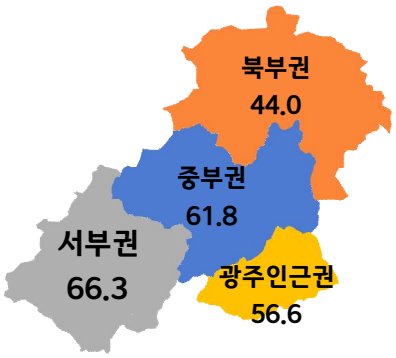
<< 가구 월평균 소득 >>

(단위 : %)



<< 지역별 가구 월평균 소득(200만원 이상) >>

(단위 : %)



가구 월평균 소득 (단위 : %)

구 분	계	50만원 미만	50만원 ~ 100만원 미만	100만원 ~ 200만원 미만	200만원 ~ 300만원 미만	300만원 ~ 400만원 미만	400만원 ~ 500만원 미만	500만원 ~ 600만원 미만	600만원 ~ 700만원 미만	700만원 ~ 800만원 미만	800만원 이상
2025년	100.0	10.9	15.4	14.4	17.9	16.3	10.4	4.8	4.2	1.7	4.1
2024년	100.0	6.7	18.6	15.2	18.9	11.9	10.5	6.3	3.1	3.5	5.2
2023년	100.0	9.1	18.3	17.9	17.9	17.3	7.2	3.7	3.2	2.0	3.3
< 지역별 >											
중부권	100.0	11.6	15.7	10.7	18.3	17.7	10.6	4.4	4.0	1.3	5.5
북부권	100.0	22.3	15.8	18.1	15.2	8.6	7.6	4.7	3.1	1.0	3.8
서부권	100.0	5.0	13.8	15.0	19.5	19.9	11.3	5.1	4.0	3.9	2.6
광주인근권	100.0	7.5	16.7	19.2	16.8	14.3	11.0	5.7	6.0	0.0	2.8
< 성별 >											
남자	100.0	5.5	10.2	14.1	17.9	19.7	13.2	6.2	5.8	2.4	5.1
여자	100.0	23.7	27.7	15.0	17.9	8.2	3.8	1.5	0.6	0.0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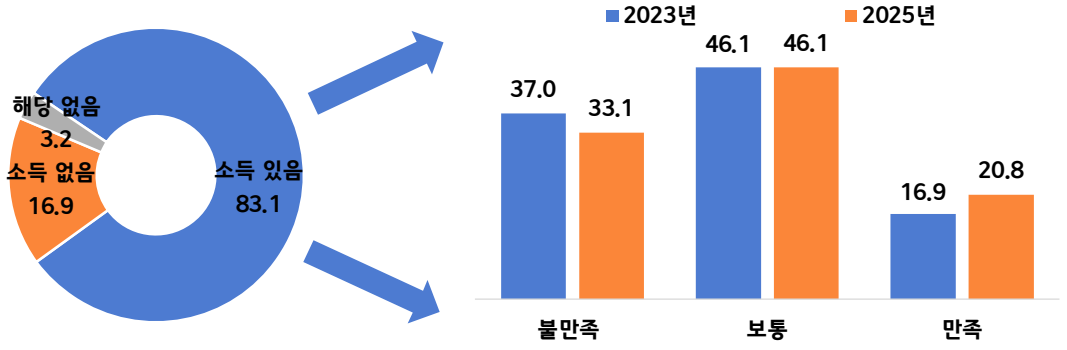
2 - 3. 소득 만족도

장성 군민의 소득 만족도 2023년 대비 증가

- **2025년 군민의 평균 소득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9점**
  - 소득 유무에 대하여 '소득 있음' 83.1%, '소득 없음' 16.9%, '해당 없음' 3.2% 순으로 나타남
  - 소득 만족도에 대하여 '만족' 20.8%, '보통' 46.1%, '불만족' 33.1%로 나타남
  - 2023년(16.9%) 대비 2025년(20.8%)에 '만족' 응답 비율이 3.9%p 증가함
  - 소득 만족도의 평균은 5점 만점에 2.9점으로 2023년(2.8점) 대비 0.1점 증가함
- **소득 만족도는 성별, 연령별로 차이를 보임**
  - 성별의 경우 '만족'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남자가 24.4%로 여자(16.1%) 대비 8.3%p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의 경우 '만족'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50~59세가 30.1%로 가장 높았고, 30~39세(24.6%), 15~29세(20.5%) 순으로 나타남

<< 소득 만족도 >>

(단위 : %)



소득 만족도 - (1) 소득 유무 (단위 : %)

구 분	계	소득 있음	소득 없음	해당 없음
2025년	100.0	83.1	16.9	3.2
2023년	100.0	87.4	12.6	-

소득 만족도 - (2) 소득 만족도 (단위 : 점, %)

구 분	만족도 평균	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2025년	2.9	100.0	33.1	6.1	27.0	46.1	20.8	16.2	4.6
2023년	2.8	100.0	37.0	6.9	30.2	46.1	16.9	10.9	5.9
< 성 별 >									
남자	2.9	100.0	33.3	5.9	27.4	42.3	24.4	19.7	4.7
여자	2.8	100.0	32.7	6.3	26.4	51.2	16.1	11.6	4.5
< 연 령 별 >									
15~29세	2.9	100.0	35.9	2.3	33.6	43.7	20.5	11.0	9.5
30~39세	2.8	100.0	40.9	9.8	31.2	34.4	24.6	19.7	4.9
40~49세	3.0	100.0	23.9	2.2	21.6	57.9	18.2	14.6	3.6
50~59세	3.1	100.0	23.9	4.3	19.6	46.0	30.1	24.5	5.6
60세 이상	2.8	100.0	37.0	7.6	29.4	45.9	17.1	13.4	3.7
65세 이상	2.7	100.0	40.1	7.2	32.8	45.7	14.2	11.4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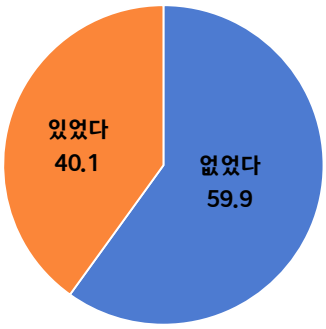
2 - 4.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 정도

장성 군민 절반 이상은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 없음

- **군민 10명 중 6명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음**
  -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에 대해 '별로 없었다'(40.2%), '가끔 있었다'(32.3%), '전혀 없었다'(19.7%), '매우 자주 있었다'(7.8%)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 정도에 대하여 지역별, 성별 차이를 보임**
  - 지역별의 경우 '있었다'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북부권이 46.7%로 가장 높았고, 중부권(40.8%), 광주인근권(39.7%), 서부권(34.8%) 순으로 나타남
  - 성별의 경우 '있었다'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여자가 42.4%로 남자(37.9%)보다 4.5%p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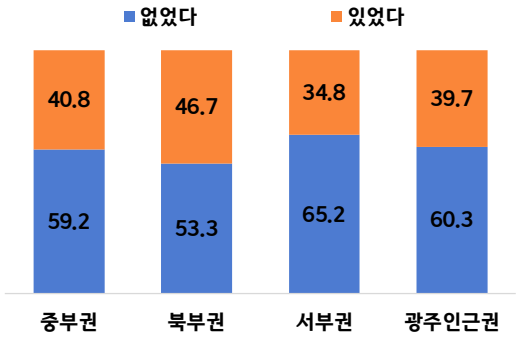
<<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 정도 >>

(단위 : %)



<< 지역별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 정도 >>

(단위 : %)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 정도 (단위 : %)

구 분	계	없었다	전혀 없었다	별로 없었다	있었다	가끔 있었다	매우 자주 있었다
2025년	100.0	59.9	19.7	40.2	40.1	32.3	7.8
2023년	100.0	61.9	20.6	41.3	38.1	30.2	7.9
< 지역별 >							
중부권	100.0	59.2	17.8	41.3	40.8	32.8	8.0
북부권	100.0	53.3	13.3	40.0	46.7	40.9	5.8
서부권	100.0	65.2	25.0	40.2	34.8	28.6	6.3
광주인근권	100.0	60.3	22.8	37.5	39.7	28.5	11.2
< 성별 >							
남자	100.0	62.1	19.8	42.4	37.9	29.4	8.5
여자	100.0	57.6	19.7	37.9	42.4	35.3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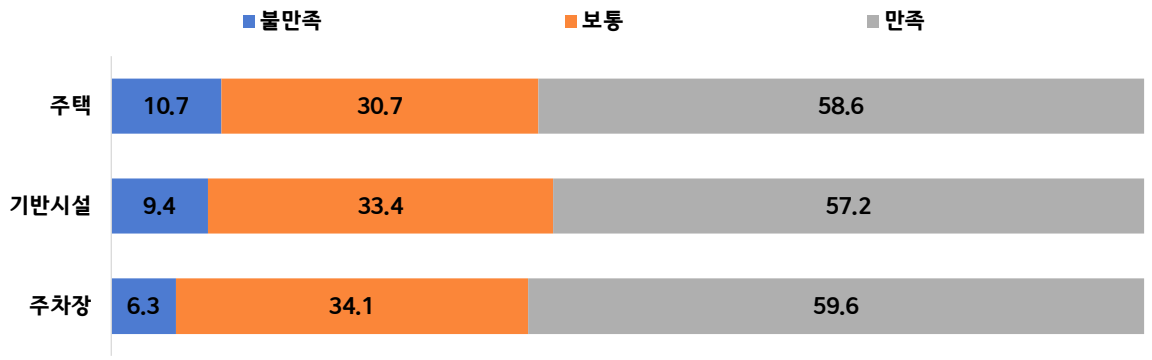
2 - 5. 주거환경 만족도

주거환경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주차장

- **주거환경 만족도에 대하여 모든 항목에서 만족의 응답이 불만족보다 높음**
  - '만족'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주차장(59.6%), 주택(58.6%), 기반시설(57.2%)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주택(10.7%), 기반시설(9.4%), 주차장(6.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2023년 대비 2025년 장성군의 주거환경 만족도 증가**
  - 2023년 대비 '만족' 응답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은 주차장으로 2023년(46.7%) 대비 12.9%p 증가하였고, 주택은 2023년(48.0%) 대비 10.6%p, 기반시설은 2023년(50.2%) 대비 7.0%p 증가함

<< 주거환경 만족도 >>

(단위 : %)



주거환경 만족도 (단위 : %)

구 분	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1) 주택								
2025년	100.0	10.7	2.4	8.3	30.7	58.6	30.4	28.2
2023년	100.0	12.9	2.6	10.3	39.2	48.0	23.6	24.4
(2) 기반시설								
2025년	100.0	9.4	2.2	7.2	33.4	57.2	31.1	26.1
2023년	100.0	10.5	3.0	7.6	39.3	50.2	25.8	24.4
(3) 주차장								
2025년	100.0	6.3	2.2	4.2	34.1	59.6	31.4	28.2
2023년	100.0	13.1	3.5	9.6	40.2	46.7	19.5	27.2

※ (3) 주차장 항목은 '잘 모름'을 제외하고 100.0 기준으로 환산한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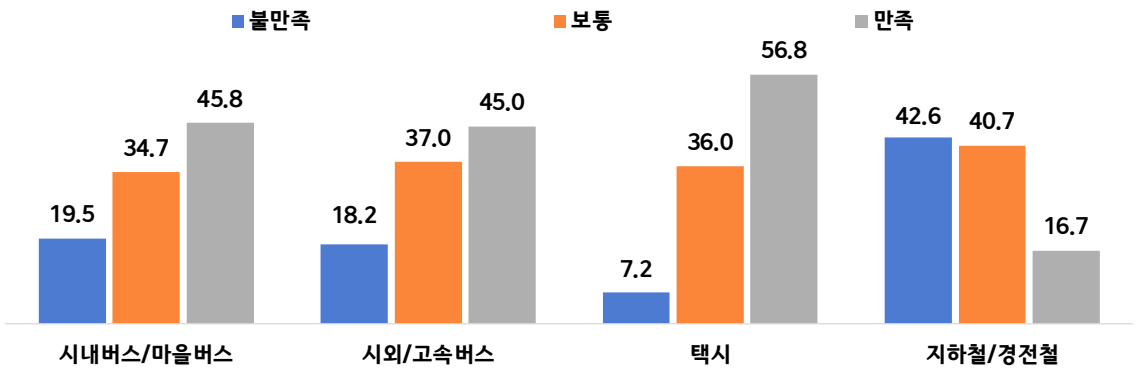
2 - 6. 교통수단 만족도

장성 군민의 교통수단 만족도는 2023년 대비 증가

- **만족도가 가장 높은 교통수단은 택시**
  - 시내버스/마을버스에 대한 '만족' 응답 비율은 45.8%, '보통' 34.7%, '불만족' 19.5%로 나타남
  - 시외/고속버스에 대한 '만족' 응답 비율은 45.0%, '보통' 37.0%, '불만족' 18.2%로 나타남
  - 택시에 대한 '만족' 응답 비율은 56.8%, '보통' 36.0%, '불만족' 7.2%로 나타났으며, 타 문항 대비 높은 '만족'과 낮은 '불만족' 응답 비율을 가짐
- **2023년 대비 2025년 교통수단 만족도 증가**
  - '만족' 응답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교통수단은 택시로 2023년(50.6%) 대비 6.2%p 증가하였고, 시내버스/마을버스는 2023년(41.4%) 대비 4.4%p, 시외/고속버스는 2023년(41.4%) 대비 3.6%p 순으로 증가함
- **교통수단 만족도에 대하여 지역별 차이를 보임**
  - 시내버스/마을버스에 대한 '만족' 응답 비율은 중부권이 59.7%로 가장 높았고, 북부권(53.9%), 서부권(32.5%), 광주인근권(25.9%) 순으로 나타남
  - 택시에 대한 '만족' 응답 비율도 중부권이 67.1%로 가장 높았고, 북부권(56.3%), 광주인근권(52.5%), 서부권(43.5%)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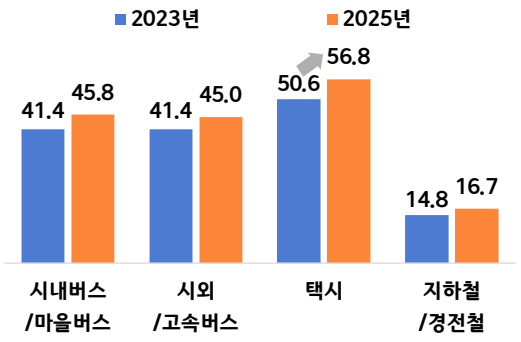
<< 교통수단 만족도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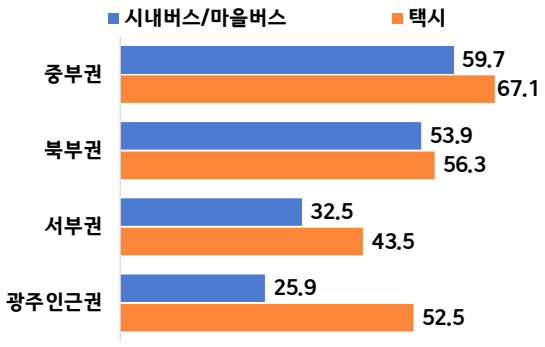
<< 연도별 교통수단 만족도(만족) >>

(단위 : %)



<< 지역별 교통수단 만족도(만족) >>

(단위 : %)



교통수단 만족도 (단위 : %)

구 분	계	해당 있음	소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해당 없음
(1) 시내버스/마을버스											
2025년	100.0	75.8	100.0	19.5	7.0	12.5	34.7	45.8	26.9	18.9	24.2
2023년	100.0	63.6	100.0	21.7	7.5	14.2	36.9	41.4	18.1	23.3	36.4
〈지역별〉											
중부권	100.0	71.5	100.0	7.0	1.1	5.9	33.4	59.7	31.9	27.7	28.5
북부권	100.0	76.1	100.0	12.5	4.1	8.4	33.5	53.9	32.2	21.7	23.9
서부권	100.0	80.8	100.0	29.5	11.3	18.2	38.0	32.5	22.2	10.4	19.2
광주인근권	100.0	79.5	100.0	40.3	16.9	23.4	33.8	25.9	17.6	8.3	20.5
(2) 시외/고속버스											
2025년	100.0	70.5	100.0	18.2	6.5	11.6	37.0	45.0	26.4	18.6	29.5
2023년	100.0	59.9	100.0	19.7	7.3	12.4	38.7	41.4	19.9	21.5	40.1
〈지역별〉											
중부권	100.0	66.3	100.0	6.8	0.8	6.0	36.8	56.4	30.6	25.8	33.7
북부권	100.0	65.3	100.0	9.5	2.8	6.7	33.5	56.8	34.3	22.5	34.7
서부권	100.0	77.8	100.0	31.2	9.6	21.6	39.2	29.4	19.8	9.6	22.2
광주인근권	100.0	75.8	100.0	31.1	17.8	13.5	36.8	32.1	20.2	11.9	24.2
(3) 택시											
2025년	100.0	75.0	100.0	7.2	2.1	5.1	36.0	56.8	32.7	24.3	25.0
2023년	100.0	63.3	100.0	12.8	5.5	7.1	36.8	50.6	23.9	26.5	36.7
〈지역별〉											
중부권	100.0	70.0	100.0	3.9	0.3	3.6	28.9	67.1	38.6	28.6	30.0
북부권	100.0	75.3	100.0	5.6	3.9	1.7	38.0	56.3	33.3	23.0	24.7
서부권	100.0	79.3	100.0	10.2	3.5	6.7	46.4	43.5	25.3	18.2	20.7
광주인근권	100.0	81.6	100.0	11.6	3.1	8.6	35.9	52.5	28.9	23.5	18.4
(4) 지하철/경전철											
2025년	100.0	5.4	100.0	42.6	16.7	25.9	40.7	16.7	7.4	9.3	94.6
2023년	100.0	2.8	100.0	29.6	14.8	14.8	55.6	14.8	7.4	7.4	97.2
〈지역별〉											
중부권	100.0	4.8	100.0	35.4	4.2	29.2	47.9	18.8	16.7	4.2	95.2
북부권	100.0	2.1	100.0	42.9	0.0	42.9	0.0	57.1	14.3	42.9	97.9
서부권	100.0	9.9	100.0	58.6	32.3	26.3	36.4	6.1	0.0	6.1	90.1
광주인근권	100.0	3.5	100.0	14.3	14.3	0.0	57.1	25.7	0.0	25.7	9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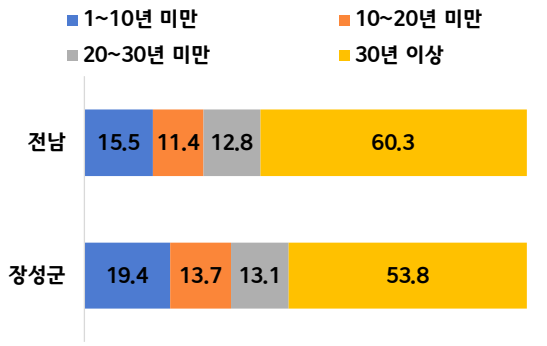
2 - 7. 지역거주기간 및 정주의사

군민 절반 이상은 10년 후에도 장성군에 거주 희망

- **장성군에서의 거주기간이 30년 이상인 군민은 10명 중 5명**
  - 전남 거주기간이 '30년 이상'인 군민은 60.3%로, 2023년(52.8%) 대비 7.5%p 증가함
  - 장성군 거주기간이 '30년 이상'인 군민은 53.8%로, 2023년(50.3%) 대비 3.5%p 증가함
- **장성 군민 10명 중 7명은 10년 후에도 정주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군민의 10년 후 전남 정주의사에 '그렇다'는 74.1%로 2023년(71.6%) 대비 2.5%p 증가함
  - 군민의 10년 후 장성군 정주의사에 '그렇다'는 74.5%로 2023(69.6%) 대비 4.9%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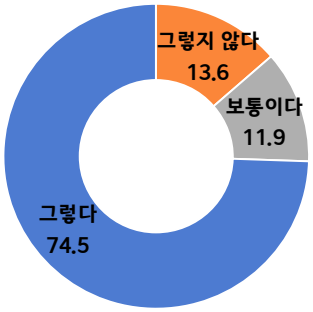
<< 거주기간 - 전남, 장성군 >>

(단위 : %)



<< 10년 후 정주의사 - 장성군 >>

(단위 : %)



지역거주기간 및 정주의사 - 거주기간 (단위 : %)

구 분	계	1~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25년 미만	25~30년 미만	30년 이상
(1) 전남 거주기간								
2025년	100.0	7.8	7.7	6.5	4.9	8.0	4.8	60.3
2023년	100.0	10.7	7.9	8.5	7.1	8.1	4.9	52.8
(2) 장성군 거주기간								
2025년	100.0	10.9	8.5	8.0	5.7	7.6	5.5	53.8
2023년	100.0	11.9	8.4	8.8	7.7	7.9	4.9	50.3

지역거주기간 및 정주의사 - 10년 후 정주의사 (단위 : %)

구 분	계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3) 10년 후 정주의사(전남)								
2025년	100.0	13.6	3.6	9.9	12.4	74.1	39.0	35.1
2023년	100.0	11.1	3.2	7.9	17.3	71.6	36.7	34.9
(4) 10년 후 정주의사(장성군)								
2025년	100.0	13.6	3.3	10.3	11.9	74.5	40.0	34.5
2023년	100.0	12.4	3.7	8.7	17.9	69.6	35.4	3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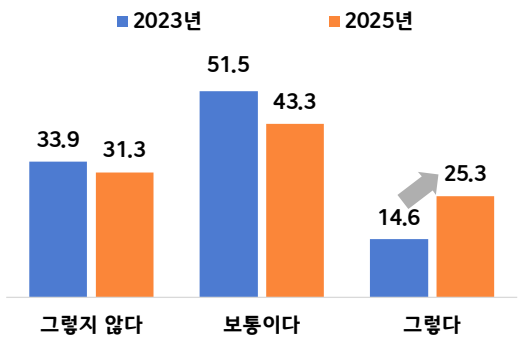
2 - 8. 일자리 충분도

장성 군민 10명 중 7명은 대체로 일자리가 충분하다고 응답

- **군민이 생각하는 일자리 충분도는 보통**
  - 군민이 생각하는 장성군 내 일자리 충분도는 '보통이다'가 43.3%로 가장 높았고. '그렇지 않다'(31.3%), '그렇다'(25.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그렇다'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023년(14.6%) 대비 10.7%p 증가함
- **일자리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60세 이상**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일자리가 '대체로 충분하다(보통이다+그렇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60세 이상 비율이 75.8%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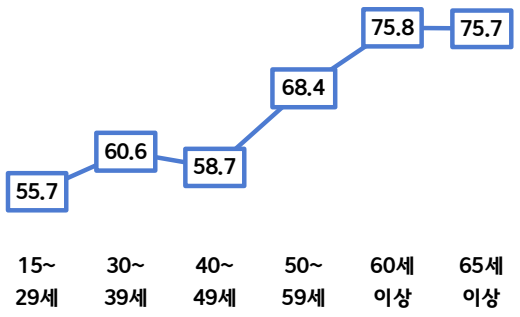
<< 일자리 충분도 >>

(단위 : %)



<< 연령별 일자리 충분도(보통이다+그렇다) >>

(단위 : %)



일자리 충분도 (단위 : %)

구 분	계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025년	100.0	31.3	6.2	25.2	43.3	25.3	20.5	4.8
2023년	100.0	33.9	6.6	27.3	51.5	14.6	11.8	2.8
<지역별>								
중부권	100.0	30.9	8.6	22.2	43.8	25.3	20.3	5.0
북부권	100.0	19.4	2.1	17.3	48.7	31.9	22.8	9.1
서부권	100.0	35.9	4.3	31.6	41.7	22.4	18.8	3.7
광주인근권	100.0	36.4	6.0	30.4	39.7	23.9	21.7	2.2
<성별>								
남자	100.0	32.2	6.8	25.4	44.3	23.5	18.7	4.8
여자	100.0	30.4	5.6	24.8	42.3	27.3	22.5	4.8
<연령별>								
15~29세	100.0	44.4	8.9	35.4	43.2	12.5	12.5	0.0
30~39세	100.0	39.4	8.8	30.6	44.2	16.4	14.4	2.0
40~49세	100.0	41.3	8.6	32.7	40.8	17.9	13.7	4.2
50~59세	100.0	31.6	10.4	21.1	40.2	28.2	25.9	2.3
60세 이상	100.0	24.2	2.8	21.4	45.0	30.8	23.2	7.6
65세 이상	100.0	24.3	2.8	21.4	45.7	30.0	22.0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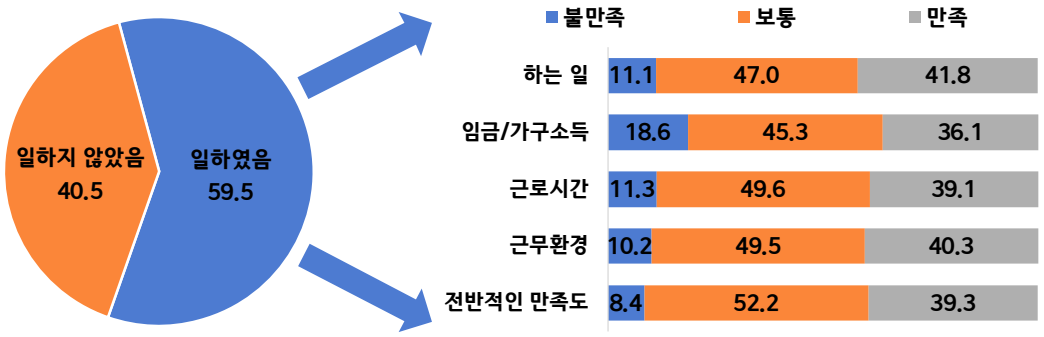
2 - 9. 일자리 만족도

일자리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하는 일

- **군민 10명 중 6명은 지난 1주일간 일을 하였음**
  - 지난 1주일간 일을 했던 군민은 59.5%, 하지 않았던 군민은 40.5%로 나타남
- **일자리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군민은 10명 중 4명**
  - 현재 하는 일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41.8%로 일자리 만족도 항목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근무환경(40.3%), 근로시간(39.1%), 임금/가구소득(36.1%) 순으로 나타남
  - 일자리 만족도의 모든 항목에서 2023년 대비 '만족' 응답 비율이 증가하였고, 각각 하는 일은 6.6%p, 임금/가구소득은 8.3%p, 근로시간은 7.8%p, 근무환경은 8.1%p 증가함
  -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임금/가구소득(18.6%)으로 나타남
- **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건강상 어려움**
  - 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건강상 어려움'(39.4%), '쉬었음'(18.9%), '육아 또는 가사'(16.8%)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의 경우 '건강상 어려움' 다음으로 남자는 '쉬었음'이 22.1%, 여자는 '육아 또는 가사'가 25.9%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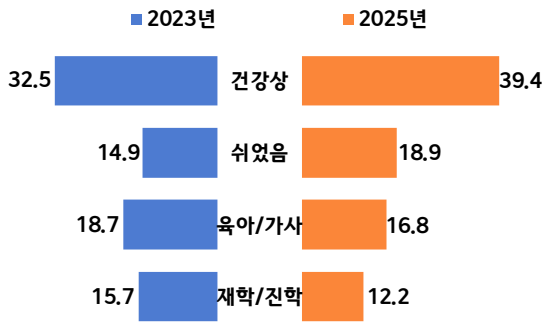
<< 일자리 만족도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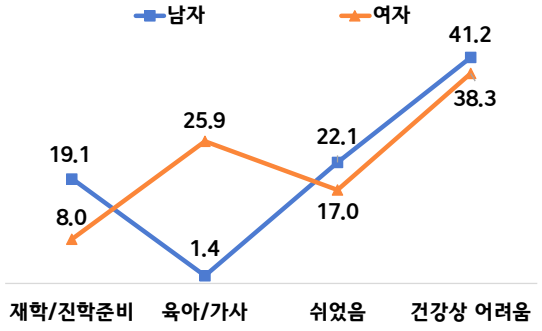
<< 연도별 일하지 않는 이유(상위 4개 항목) >>

(단위 : %)



<< 성별 일하지 않는 이유(상위 4개 항목) >>

(단위 : %)



일자리 만족도 - (1) 1주일간 노동 여부 (단위 : %)

구 분	계	일하였음	하지 않았음
2025년	100.0	59.5	40.5
2023년	100.0	63.4	36.6

일자리 만족도 (단위 : %)

구 분	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2) 하는 일								
2025년	100.0	11.1	0.5	10.6	47.0	41.8	30.0	11.9
2023년	100.0	11.1	1.1	10.0	53.8	35.2	26.1	9.1
(3) 임금/가구소득								
2025년	100.0	18.6	2.5	16.1	45.3	36.1	26.5	9.5
2023년	100.0	19.1	3.0	16.1	53.1	27.8	21.0	6.9
(4) 근로시간								
2025년	100.0	11.3	1.0	10.3	49.6	39.1	27.5	11.6
2023년	100.0	11.3	1.3	10.0	57.4	31.3	23.4	7.9
(5) 근무환경								
2025년	100.0	10.2	1.2	8.9	49.5	40.3	30.0	10.3
2023년	100.0	8.8	0.9	7.9	59.0	32.2	24.5	7.7
(6) 전반적인 만족도								
2025년	100.0	8.4	0.7	7.7	52.2	39.3	28.4	10.9
2023년	100.0	8.1	0.6	7.5	58.4	33.5	26.4	7.1

일자리 만족도 - (7) 일하지 않는 이유 (단위 : %)

구 분	계	구직활동	취업준비	정규교육 기관 재학 또는 진학준비	육아 또는 가사	쉬었음	건강상 어려움	기타
2025년	100.0	2.8	2.7	12.2	16.8	18.9	39.4	7.4
2023년	100.0	2.8	3.3	15.7	18.7	14.9	32.5	12.1
〈 성 별 〉								
남 자	100.0	5.1	3.6	19.1	1.4	22.1	41.2	7.5
여 자	100.0	1.4	2.1	8.0	25.9	17.0	38.3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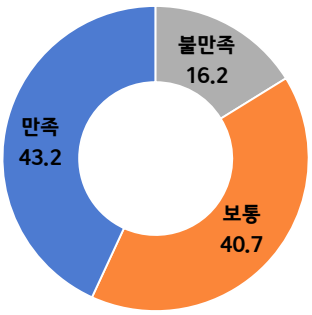
2 - 10. 교육환경 만족도

2023년 대비 2025년 보육 및 공교육 환경 만족도 증가

- **군민 10명 중 4명은 보육 및 공교육 환경에 만족**
  - 보육 환경에 대하여 '만족'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43.2%로 2023년(28.0%) 대비 15.2%p 증가함
  - 공교육 환경에 대하여 '만족'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41.1%로 2023년(26.6%) 대비 14.5%p 증가함
  - 성별의 경우 보육 환경에 대하여 '만족'이라고 응답한 남자의 비율은 49.8%로 여자(12.6%) 대비 37.2%p 더 높게 나타남
- **학교 외 교육 기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군민의 비율 2023년 대비 증가**
  - 학교 외 교육 기회 충분도에 대하여 '그렇다' 응답 비율은 24.1%로 2023년(16.7%) 대비 7.4%p 증가하였고, '보통이다' 39.6%, '그렇지 않다' 36.4%로 나타남
  - '그렇다' 응답 비율은 북부권(40.1%)이 가장 높고, 서부권(20.7%)이 가장 낮음
- **평생교육 기회가 대체로 충분하다(그렇다+보통이다)라고 생각하는 군민은 10명 중 6명**
  - 평생교육 기회 충분도에 대하여 '그렇다' 응답 비율은 19.3%로 2023년(12.5%) 대비 6.8%p 증가하였고, '보통이다' 39.1%, '그렇지 않다' 17.3%, '잘 모르겠다' 24.3%로 나타남
  - '그렇다' 응답 비율은 광주인근권(23.3%)이 가장 높고, 북부권(14.4%)이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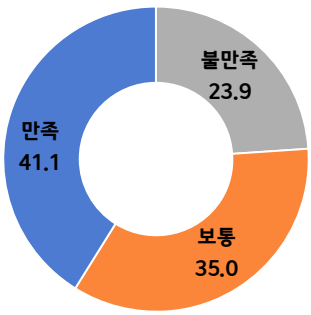
<< 보육 환경 만족도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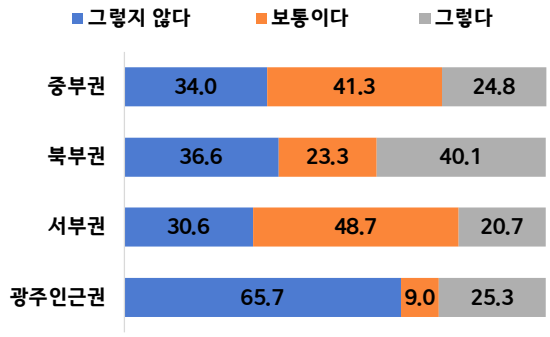
<< 공교육 환경 만족도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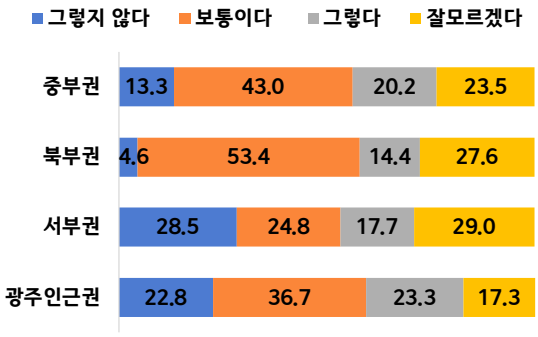
<< 지역별 학교 외 교육 기회 충분도 >>

(단위 : %)



<< 지역별 평생교육 기회 충분도 >>

(단위 : %)



교육환경 만족도 (단위 : %)

구 분	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1) 보육 환경 만족도								
2025년	100.0	16.2	0.0	16.2	40.7	43.2	35.3	7.9
2023년	100.0	11.3	0.0	11.3	60.6	28.0	23.7	4.3
〈성 별〉								
남 자	100.0	7.1	0.0	7.1	43.2	49.8	41.5	8.2
여 자	100.0	58.2	0.0	58.2	29.2	12.6	6.3	6.3
(2) 공교육 환경 만족도								
2025년	100.0	23.9	4.5	19.4	35.0	41.1	28.8	12.3
2023년	100.0	13.3	1.1	12.3	60.0	26.6	20.8	5.9

교육환경 만족도 - (3) 학교 외 교육 기회 충분도 (단위 : %)

구 분	계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025년	100.0	36.4	4.4	31.9	39.6	24.1	22.6	1.5
2023년	100.0	30.5	2.3	28.2	52.7	16.7	16.7	0.0
〈지역별〉								
중부권	100.0	34.0	8.7	25.3	41.3	24.8	21.9	2.9
북부권	100.0	36.6	0.0	36.6	23.3	40.1	40.1	0.0
서부권	100.0	30.6	0.0	30.6	48.7	20.7	20.7	0.0
광주인근권	100.0	65.7	0.0	65.7	9.0	25.3	25.3	0.0

교육환경 만족도 - (4) 평생교육 기회 충분도 (단위 : %)

구 분	계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2025년	100.0	17.3	1.8	15.4	39.1	19.3	17.8	1.5	24.3
2023년	100.0	16.7	3.0	13.7	50.2	12.5	10.6	2.0	20.6
〈지역별〉									
중부권	100.0	13.3	2.0	11.2	43.0	20.2	18.4	1.8	23.5
북부권	100.0	4.6	0.0	4.6	53.4	14.4	13.2	1.1	27.6
서부권	100.0	28.5	3.4	25.1	24.8	17.7	17.5	0.2	29.0
광주인근권	100.0	22.8	0.7	22.1	36.7	23.3	20.5	2.8	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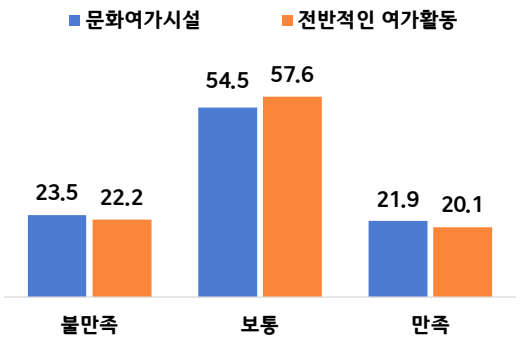
2 - 11. 여가활동 만족도

군민 10명 중 7명은 여가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

- **군민 절반 이상은 문화여가시설 및 전반적인 여가활동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보통+만족)고 응답**
  - 문화여가시설 만족도에 대하여 '보통+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6.4%로 나타남
  - 전반적인 여가활동 만족도에 대하여 '보통+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7.7%로 나타남
- **전반적인 여가활동은 지역별 차이를 보임**
  - 전반적인 여가활동에 대한 '보통+만족' 응답 비율은 북부권이 88.5%로 가장 높았고, 중부권(82.2%), 광주인근권(72.6%), 서부권(66.7%)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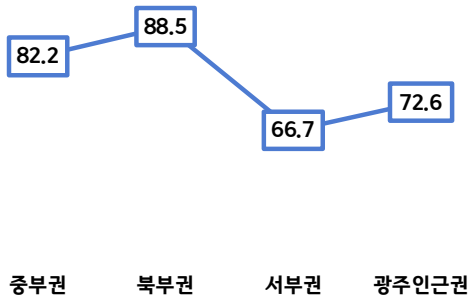
<< 여가활동 만족도 >>

(단위 : %)



<< 지역별 전반적인 여가활동 만족도(보통+만족) >>

(단위 : %)



여가활동 만족도 (단위 : %)

구 분	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1) 문화여가시설								
2025년	100.0	23.5	4.8	18.7	54.5	21.9	17.4	4.6
2023년	100.0	28.5	9.4	19.1	54.3	17.2	12.6	4.6
< 지역별 >								
중부권	100.0	16.6	1.8	14.8	56.6	26.8	20.0	6.8
북부권	100.0	11.8	3.5	8.4	63.4	24.7	20.6	4.1
서부권	100.0	38.1	8.7	29.4	48.8	13.1	11.8	1.3
광주인근권	100.0	31.2	8.2	23.0	49.6	19.2	15.4	3.8
(2) 전반적인 여가활동								
2025년	100.0	22.2	5.0	17.3	57.6	20.1	15.8	4.3
2023년	100.0	28.2	8.6	19.6	54.8	17.0	12.9	4.1
< 지역별 >								
중부권	100.0	17.9	2.2	15.7	58.3	23.9	17.4	6.4
북부권	100.0	11.5	4.0	7.5	64.1	24.4	20.3	4.1
서부권	100.0	33.4	8.6	24.7	55.7	11.0	10.2	0.8
광주인근권	100.0	27.3	7.8	19.5	53.1	19.5	15.8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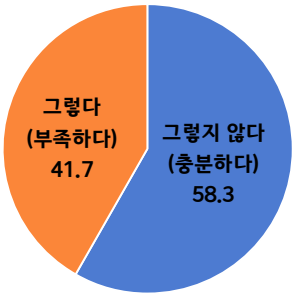
2 - 12.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

본인의 시간사용에 만족하다고 응답한 군민은 10명 중 6명

- **군민의 절반 이상은 평일과 주말의 시간사용이 충분하다(그렇지 않다)고 응답**
  - 평일에 시간이 '충분하다(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군민은 58.3%로 나타남
  - 주말에 시간이 '충분하다(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군민은 66.3%로 나타남
  - 평일에 시간이 '충분하다(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북부권의 비율은 71.6%로 가장 높으며, 타 지역 대비 11.8%p 이상 높음
- **평일과 주말에 가장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연령대는 40~49세**
  - 평일에 시간이 '부족하다(그렇다)'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40~49세가 60.9%로 가장 높았고, 65세 이상이 23.6%로 가장 낮았음
  - 주말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도 40~49세가 51.5%로 가장 높았고, 65세 이상이 22.6%로 가장 낮았음
- **여자 대비 남자가 평일과 주말에 시간이 부족함**
  - 평일에 시간이 '부족하다(그렇다)'고 응답한 남자의 비율은 44.4%로 여자(38.8%) 대비 5.6%p 더 높게 나타남
  - 주말에 시간이 '부족하다(그렇다)'고 응답한 남자의 비율은 34.4%로 여자(33.0%) 대비 1.4%p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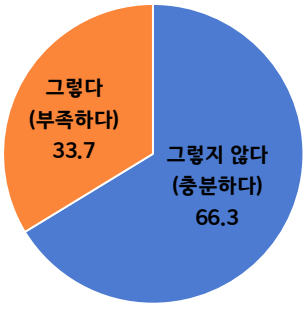
<< 평일 시간사용 부족>>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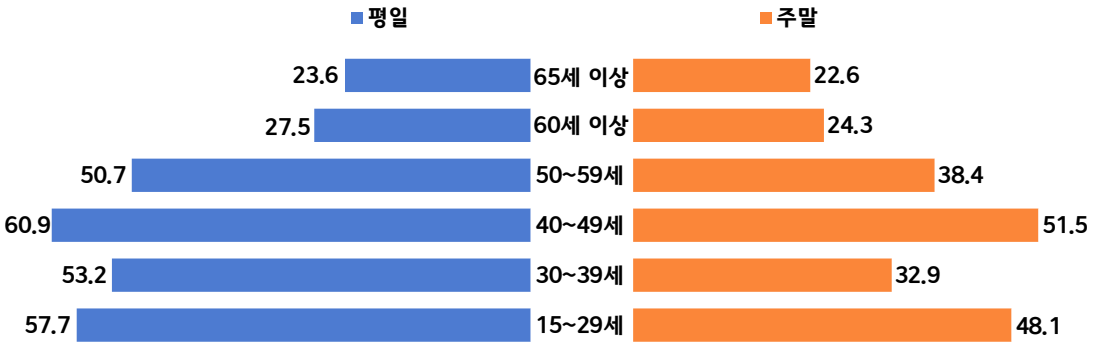
<< 주말 시간사용 부족 >>

(단위 : %)



<< 연령별 평일, 주말 시간사용 부족(그렇다) >>

(단위 : %)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 (단위 : %)

구 분	계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평일							
2025년	100.0	58.3	19.3	39.0	41.7	33.3	8.3
2023년	100.0	61.5	19.8	41.7	38.5	30.7	7.8
〈지역별〉							
중부권	100.0	54.7	18.5	36.2	45.3	34.8	10.5
북부권	100.0	71.6	32.2	39.4	28.4	21.7	6.7
서부권	100.0	59.8	16.4	43.4	40.2	34.8	5.4
광주인근권	100.0	54.3	14.3	40.0	45.7	37.3	8.4
〈성별〉							
남자	100.0	55.6	17.5	38.0	44.4	35.1	9.3
여자	100.0	61.2	21.1	40.1	38.8	31.4	7.4
〈연령별〉							
15~29세	100.0	42.3	5.1	37.2	57.7	45.5	12.2
30~39세	100.0	46.8	16.2	30.6	53.2	40.5	12.7
40~49세	100.0	39.1	5.3	33.8	60.9	52.0	8.9
50~59세	100.0	49.3	13.1	36.2	50.7	37.1	13.6
60세 이상	100.0	72.5	29.1	43.4	27.5	23.0	4.5
65세 이상	100.0	76.4	33.2	43.3	23.6	20.2	3.3
(2) 주말(공휴일 포함)							
2025년	100.0	66.3	22.1	44.2	33.7	27.7	6.0
2023년	100.0	67.1	22.0	45.1	32.9	26.3	6.6
〈성별〉							
남자	100.0	65.6	20.4	45.2	34.4	28.0	6.4
여자	100.0	67.0	23.8	43.2	33.0	27.4	5.6
〈연령별〉							
15~29세	100.0	51.9	6.3	45.6	48.1	40.3	7.8
30~39세	100.0	67.1	22.8	44.3	32.9	24.4	8.5
40~49세	100.0	48.5	6.0	42.5	51.5	43.8	7.7
50~59세	100.0	61.6	17.1	44.5	38.4	29.8	8.6
60세 이상	100.0	75.7	31.7	44.1	24.3	20.5	3.7
65세 이상	100.0	77.4	35.4	42.0	22.6	19.8	2.8

3. 전라남도 항목

3 - 1.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3 - 2. 걱정되는 질환

3 - 3. 전자기기 사용의 어려움

3 - 4. 편의시설 수요

3 - 5.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3 - 6.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

3 - 7. 다문화 가정의 사회통합

3 - 8. 독서여부 및 만족도

3 - 9. 야간활동 안전성

3 - 10. 디지털 전환 분야

3 - 11. 행정정보 획득 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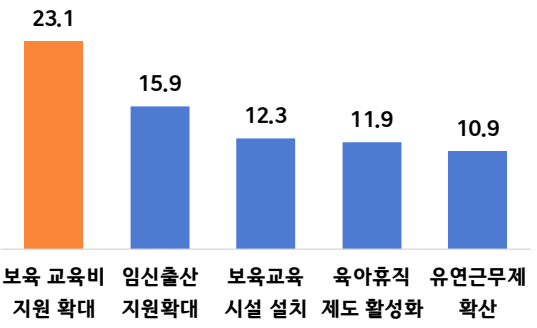
3 - 1.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영유아 보육 교육비 지원확대

- **군민 10명 중 2명이 생각하는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은 영유아 보육 교육비 지원확대**
  -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확대'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3.1%로 가장 높았고, '임신·출산 지원확대'(15.9%), '직장 내 보육·교육시설 설치 활성화'(12.3%) 순으로 나타남
- **군민 2명 중 1명은 이상적인 자녀 수가 2명**
  - 이상적인 자녀 수로 '2명'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49.0%로 가장 높았고, '3명'(27.1%), '1명'(16.4%) 순으로 나타남
  - '2명'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023년(49.9%) 대비 0.9%p 감소하였으나, '3명'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023년(21.0%) 대비 6.1%p 증가함
  - 성별의 경우 남자는 '평균' 2.2명, 여자는 '평균' 2.3명을 이상적인 자녀 수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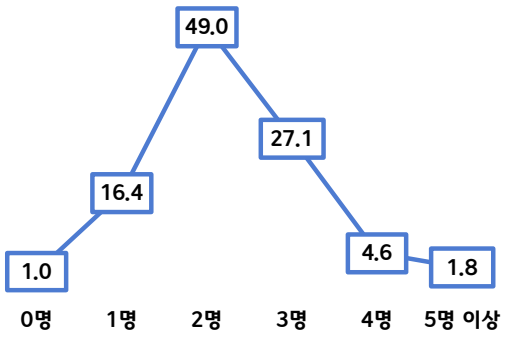
<<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상위 5개 항목) >>

(단위 : %)



<< 이상적인 자녀 수 >>

(단위 :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 (1)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다중응답) (단위 : %)

구 분	계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확대	임신출산 지원확대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유연 근무제 확산	직장 내 보육교육 시설 설치 활성화	보육시설 서비스 수준향상	출산육아 휴직 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기타
2025년	100.0	23.1	15.9	11.9	10.9	12.3	8.4	10.8	6.3	0.5
2023년	100.0	29.2	22.0	11.6	7.4	10.1	6.5	7.7	4.7	0.8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 (2) 이상적인 자녀 수 (단위 : 명, %)

구 분	평균	계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6명 초과
2025년	2.2	100.0	1.0	16.4	49.0	27.1	4.6	1.6	0.1	0.1
2023년	2.1	100.0	2.1	22.1	49.9	21.0	2.9	1.3	0.5	0.2
< 성 별 >										
남자	2.2	100.0	0.9	16.8	52.6	24.2	3.9	1.4	0.1	0.0
여자	2.3	100.0	1.1	16.0	45.3	30.1	5.2	1.9	0.1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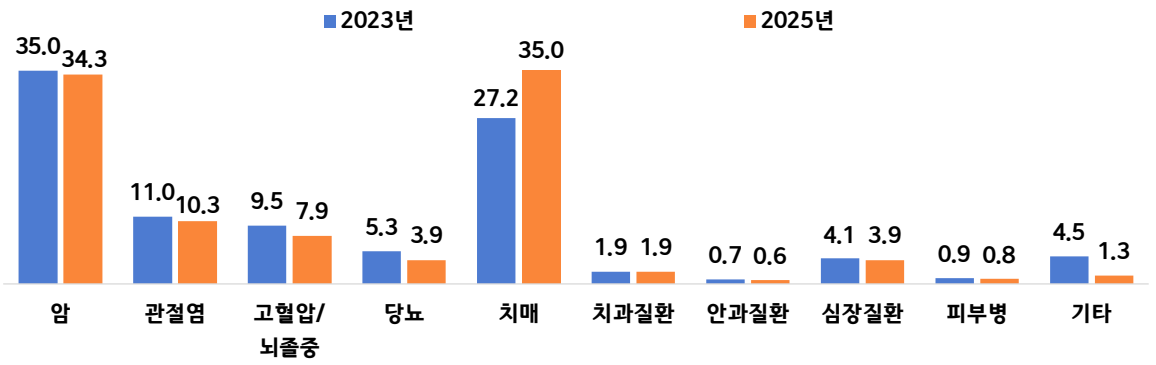
3 - 2. 걱정되는 질환

장성 군민이 가장 걱정하는 질병은 치매

- **군민 10명 중 3명이 걱정하는 질환은 치매**
  - 향후 걱정하는 질환으로 '치매'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35.0%로 가장 높았고, '암'(34.3%), '관절염'(10.3%) 순으로 나타남
- **걱정하는 질환은 연령별, 성별 차이를 보임**
  - 연령별의 경우 향후 걱정하는 질환으로 '치매'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65세 이상이 46.8%로 가장 높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암'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30~39세가 58.6%로 가장 높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성별의 경우 남자는 '암'이 34.6%로 가장 높았고, 여자는 '치매'가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군민이 질병을 걱정하는 주된 이유는 삶의 질 저하**
  - 질병을 걱정하는 이유로 '삶의 질 저하'라고 응답한 비율은 29.0%로 가장 높았고, '가족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27.2%), '의료비 부담'(23.8%) 순으로 나타남
  - 성별의 경우 남자는 '삶의 질 저하'(31.7%), 여자는 '가족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29.2%)를 주된 이유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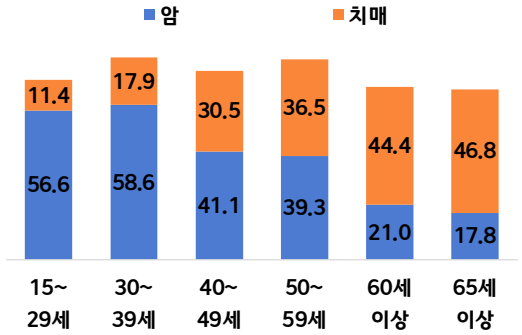
<< 연도별 걱정되는 질환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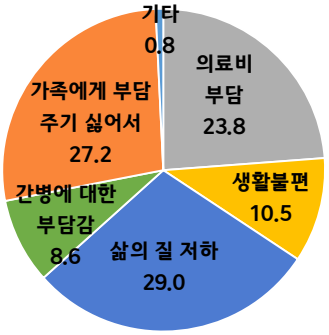
<< 연령별 걱정되는 질환(암,치매) >>

(단위 : %)



<< 걱정하는 이유 >>

(단위 : %)



걱정되는 질환 - (1) 걱정하는 질환 (단위 : %)

구 분	계	암	관절염	고혈압, 뇌졸중	당뇨	치매	치과 질환	안과 질환	심장 질환	피부병	기타
2025년	100.0	34.3	10.3	7.9	3.9	35.0	1.9	0.6	3.9	0.8	1.3
2023년	100.0	35.0	11.0	9.5	5.3	27.2	1.9	0.7	4.1	0.9	4.5
〈성 별〉											
남 자	100.0	34.6	7.7	10.3	5.6	31.7	2.1	1.2	4.3	0.9	1.6
여 자	100.0	34.1	13.0	5.4	2.1	38.5	1.7	0.0	3.5	0.8	1.0
〈연령별〉											
15~29세	100.0	56.6	2.1	2.1	10.9	11.4	6.0	0.0	6.7	4.0	0.0
30~39세	100.0	58.6	0.0	6.2	3.3	17.9	3.5	2.0	4.7	3.0	0.7
40~49세	100.0	41.1	5.8	14.6	1.0	30.5	0.0	1.0	3.2	0.8	1.9
50~59세	100.0	39.3	9.3	7.7	2.5	36.5	0.4	0.6	3.1	0.0	0.6
60세 이상	100.0	21.0	15.6	8.1	3.5	44.4	1.6	0.4	3.5	0.0	1.8
65세 이상	100.0	17.8	17.3	8.1	3.3	46.8	1.4	0.5	2.9	0.0	1.8

걱정되는 질환 - (2) 걱정하는 이유 (단위 : %)

구 분	계	의료비 부담	생활불편	삶의 질 저하	간병에 대한 부담감	가족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기타
2025년	100.0	23.8	10.5	29.0	8.6	27.2	0.8
2023년	100.0	19.1	15.1	24.2	9.7	28.6	3.3
〈성 별〉							
남 자	100.0	24.5	10.4	31.7	7.4	25.3	0.7
여 자	100.0	23.1	10.6	26.2	9.9	29.2	1.0
〈연령별〉							
15~29세	100.0	24.5	16.6	30.6	6.8	18.6	2.9
30~39세	100.0	40.5	7.3	24.5	7.6	20.1	0.0
40~49세	100.0	24.6	6.2	31.1	4.1	32.1	1.9
50~59세	100.0	19.3	5.8	41.8	7.0	26.1	0.0
60세 이상	100.0	22.2	12.4	24.0	10.9	29.9	0.6
65세 이상	100.0	22.1	11.9	20.6	11.9	33.0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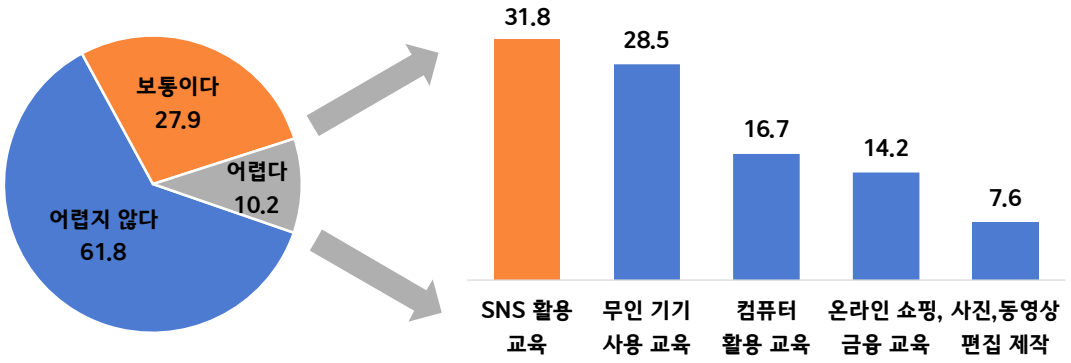
3 - 3. 전자기기 사용의 어려움

군민 10명 중 7명은 전자기기를 사용

- **군민 10명 중 1명은 전자기기 사용의 어려움을 느낌**
  - 전자기기를 사용한 74.9% 중 전자기기 사용의 어려움에 대하여 '어렵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10.2%, '보통이다' 27.9%, '어렵지 않다' 61.8%로 나타남
  - '어렵다'라고 응답한 여자의 비율은 13.1%로 남자(7.9%) 대비 5.2%p 더 높게 나타남
- **전자기기 사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은 SNS 활용 교육**
  - 전자기기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필요한 교육은 'SNS 활용 교육'(31.8%), '무인 기기(키오스크 등) 사용 교육'(28.5%), '컴퓨터 활용 교육'(16.7%)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남자는 '무인 기기(키오스크 등) 사용 교육'(35.8%), 여자는 'SNS 활용 교육'(33.1%)을 필요한 교육으로 응답함
- **전자기기 사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은 지역별, 연령별 차이가 있음**
  - 지역별의 경우 전자기기 사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으로 중부권, 서부권, 광주인근권은 'SNS 활용 교육'(32.2%, 43.9%, 37.0%)을 북부권은 '무인 기기(키오스크 등) 사용 교육'(43.2%)을 응답함
  - 연령별의 경우 15~29세는 '컴퓨터 활용 교육'(50.0%)과 '무인 기기(키오스크 등) 사용 교육'(50.0%)의 응답 비율이 높았고, 그 외 연령은 모두 'SNS 활용 교육'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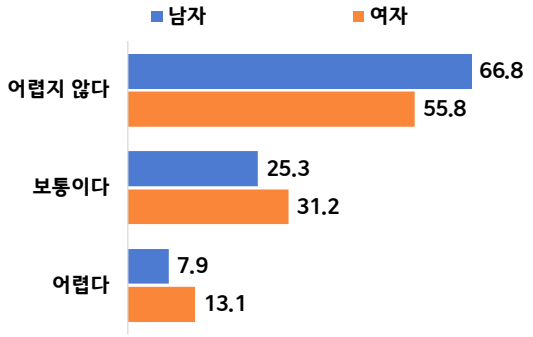
<< 전자기기 사용의 어려움 정도 및 필요한 교육(기타 제외)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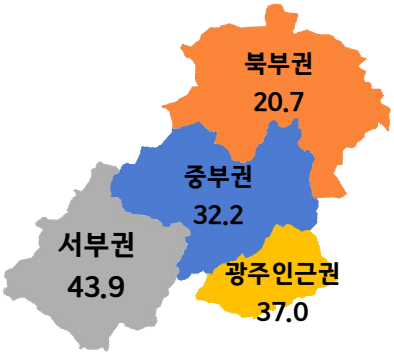
<< 성별 전자기기 사용의 어려움 >>

(단위 : %)



<< 지역별 필요한 교육(SNS 활용 교육) >>

(단위 : %)



전자기기 사용의 어려움 - (1) 사용 여부 및 어려움 정도(키오스크 등) (단위 : %)

구 분	계	있다	소계	어렵지 않다	전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어렵다	약간 어렵다	매우 어렵다	없다
2025년	100.0	74.9	100.0	61.8	43.9	18.0	27.9	10.2	5.5	4.7	25.1
〈성 별〉											
남 자	100.0	80.6	100.0	66.8	46.9	19.9	25.3	7.9	5.1	2.8	19.4
여 자	100.0	68.9	100.0	55.8	40.1	15.7	31.2	13.1	5.9	7.1	31.1

전자기기 사용의 어려움 - (2) 어려움 해소 위해 필요한 교육(다중응답) (단위 : %)

구 분	계	컴퓨터 활용 교육(한글, 인터넷 등)	사진, 동영상 편집 및 제작	SNS 활용 교육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온라인 쇼핑 및 금융 (인터넷뱅킹) 교육	무인 기기 (키오스크 등) 사용 교육	기타
2025년	100.0	16.7	7.6	31.8	14.2	28.5	1.2
〈지역별〉							
중부권	100.0	16.0	7.2	32.2	18.1	25.5	1.0
북부권	100.0	9.1	7.5	20.7	16.2	43.2	3.3
서부권	100.0	19.5	4.9	43.9	0.0	31.6	0.0
광주인근권	100.0	29.1	11.4	37.0	7.6	14.9	0.0
〈성 별〉							
남 자	100.0	16.2	4.7	29.9	12.0	35.8	1.4
여 자	100.0	17.1	9.5	33.1	15.6	23.4	1.2
〈연령별〉							
15~29세	100.0	50.0	0.0	0.0	0.0	50.0	0.0
30~39세	0.0	0.0	0.0	0.0	0.0	0.0	0.0
40~49세	100.0	14.4	14.4	47.5	0.0	23.8	0.0
50~59세	100.0	24.4	0.0	45.1	0.0	30.5	0.0
60세 이상	100.0	14.2	8.6	30.6	17.6	27.5	1.6
65세 이상	100.0	14.7	8.6	35.0	15.7	24.2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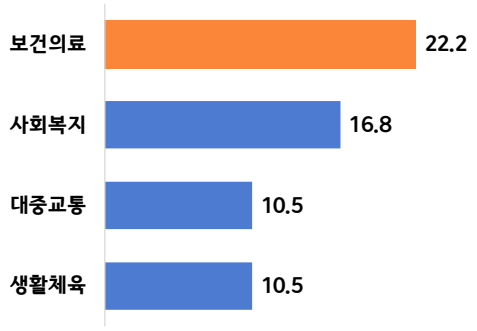
3 - 4. 편의시설 수요(다중응답)

장성 군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은 보건의료시설

- **보건의료시설을 필요로 하는 군민은 10명 중 2명**
  - ‘보건의료시설’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2.2%로 가장 높았고, ‘사회복지시설’(16.8%), ‘대중교통시설’과 ‘생활체육시설’(10.5%) 순으로 나타남
-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은 지역별, 연령별 차이를 보임**
  - 모든 지역에서 ‘보건의료시설’을 가장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로 응답함
  - ‘대중교통시설’의 경우 서부권(16.8%)이 타 지역 대비 4.2%p 이상의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생활체육시설’의 경우 중부권(13.3%)이 타 지역 대비 2.7%p 이상의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연령별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응답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문화예술시설’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응답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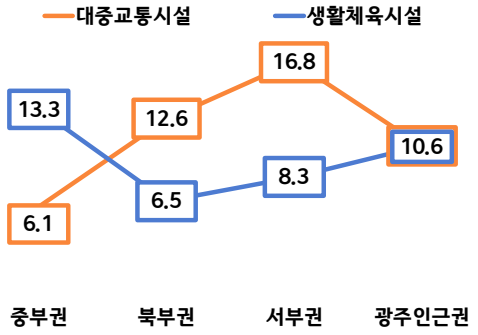
<< 편의시설 수요(상위 4개 항목) >>

(단위 : %)



<< 지역별 편의시설 수요 >>

(단위 : %)



편의시설 수요(다중응답) (단위 : %)

구 분	계	보육시설	교육시설	보건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시설	도로 및 주차시설	문화예술시설	생활체육시설	판매상업시설	상하수도시설	기타
2025년	100.0	7.9	7.8	22.2	16.8	10.5	9.7	7.5	10.5	5.4	1.2	0.4
2023년	100.0	10.5	9.3	25.1	15.2	8.4	8.6	8.2	8.7	3.6	0.8	1.6
< 지역별 >												
중부권	100.0	10.4	8.2	20.1	14.3	6.1	11.2	9.2	13.3	5.4	1.6	0.2
북부권	100.0	7.8	9.1	24.0	19.7	12.6	10.2	6.0	6.5	2.4	1.6	0.3
서부권	100.0	4.3	6.8	25.6	16.8	16.8	6.4	7.7	8.3	6.4	0.2	0.7
광주인근권	100.0	6.9	6.9	21.4	19.8	10.6	10.3	4.7	10.6	6.7	1.3	0.8
< 연령별 >												
15~29세	100.0	4.2	9.7	16.1	5.2	14.6	11.6	16.0	12.5	10.1	0.0	0.0
30~39세	100.0	16.6	14.5	20.3	8.3	4.2	8.3	12.0	10.4	3.8	0.0	1.5
40~49세	100.0	10.4	15.0	19.6	6.7	9.0	8.8	10.4	12.2	6.7	0.3	0.9
50~59세	100.0	9.0	8.6	19.0	13.8	8.5	12.1	7.0	14.0	5.9	2.0	0.0
60세 이상	100.0	6.2	4.0	26.1	24.8	11.8	8.8	4.0	8.3	4.0	1.7	0.4
65세 이상	100.0	5.7	4.0	27.2	25.8	12.0	7.5	3.3	8.1	4.2	1.7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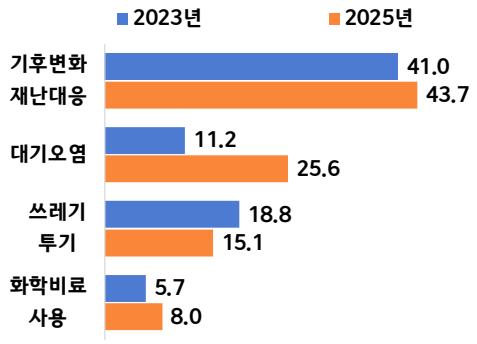
3 - 5.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우선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환경 문제는 기후변화 재난대응

- **군민 10명 중 4명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분야는 기후변화 재난대응**
  - ‘기후변화 재난대응’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43.7%로 가장 높았고, ‘대기오염’(25.6%), ‘쓰레기 투기’(15.1%) 순으로 나타남
  - 2023년 대비 응답률이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은 ‘대기오염’(25.6%)으로 2023년(11.2%) 대비 14.4%p 증가함
  - 2023년 대비 응답률이 가장 많이 감소한 항목은 ‘방사능 물질위험’(2.5%)으로 2023년(16.1%) 대비 13.6%p 감소함
- **타 지역 대비 기후변화 재난대응의 응답률이 높은 광주인근권**
  - 우선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환경 문제에 ‘기후변화 재난대응’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광주인근권이 54.9%로 가장 높았고, 북부권(46.8%), 서부권(40.6%), 중부권(40.1%)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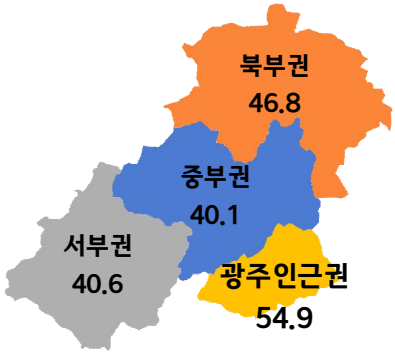
<< 연도별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상위 4개 항목) >>

(단위 : %)



<< 지역별 기후변화 재난대응 응답률 >>

(단위 : %)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 분	계	기후변화 재난대응	유해 화학물질 사용	방사능 물질위험	대기오염	농약, 화학비료 사용	수돗물 오염	쓰레기 투기	기타
2025년	100.0	43.7	3.6	2.5	25.6	8.0	1.3	15.1	0.1
2023년	100.0	41.0	3.1	16.1	11.2	5.7	1.9	18.8	2.3
< 지역별 >									
중부권	100.0	40.1	3.6	2.4	25.8	6.6	1.7	19.7	0.0
북부권	100.0	46.8	4.7	3.1	22.8	10.8	2.0	9.9	0.0
서부권	100.0	40.6	2.5	3.0	28.9	9.7	0.6	14.3	0.4
광주인근권	100.0	54.9	3.9	1.4	23.0	6.8	0.8	9.1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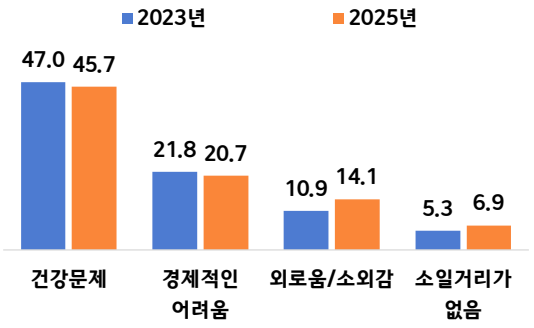
3 - 6.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다중응답)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겪는 주된 어려움은 건강문제

- **장성군 노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1순위는 건강문제**
  - '건강문제'라고 응답한 만 65세 이상의 군민의 비율은 45.7%로 가장 높았고, '경제적인 어려움'(20.7%), '외로움, 소외감'(14.1%) 순으로 나타남
  - '외로움, 소외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23년(10.9%) 대비 3.2%p 증가하여 항목 중 가장 큰 증가폭을 보임
-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지역별, 성별 차이를 보임**
  - 지역별의 경우 '건강문제'라고 응답한 서부권의 비율은 50.5%로 타 지역 대비 4.6%p 이상 높음
  - 성별의 경우 '건강문제'라고 응답한 남자의 비율은 43.3%로 여자(47.7%) 대비 4.4%p 낮게 나타났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응답한 남자의 비율은 22.0%로 여자(19.7%) 대비 2.3%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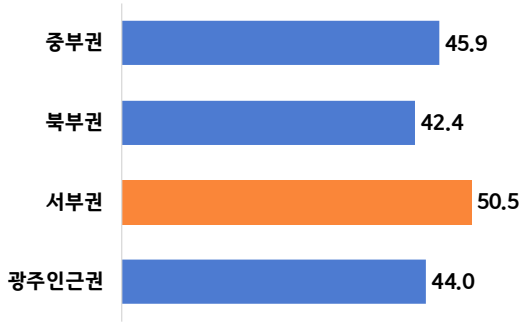
<< 연도별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 >>

(단위 : %)



<< 지역별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건강문제) >>

(단위 : %)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다중응답) (단위 : %)

구 분	계	경제적인 어려움	직업이 없거나 고용이 불안정	소일 거리가 없음	건강 문제	외로움, 소외감	가족으로부터 냉대	사회에서의 경로의식 약화	일상생활 도움 서비스 부족	노인 복지 시설 부족	기타
2025년	100.0	20.7	3.5	6.9	45.7	14.1	0.9	3.5	2.4	1.9	0.3
2023년	100.0	21.8	5.1	5.3	47.0	10.9	0.6	2.6	2.9	2.5	1.2
< 지역별 >											
중부권	100.0	19.3	3.0	6.6	45.9	15.4	1.0	4.0	3.1	1.2	0.4
북부권	100.0	20.2	4.9	4.9	42.4	19.3	0.6	2.4	2.8	2.1	0.6
서부권	100.0	23.0	1.7	8.1	50.5	9.7	0.9	2.4	0.7	3.0	0.0
광주인근권	100.0	22.0	5.0	8.6	44.0	10.1	1.0	4.8	2.3	1.9	0.3
< 성별 >											
남자	100.0	22.0	4.2	6.7	43.3	13.7	0.9	5.2	1.8	2.1	0.0
여자	100.0	19.7	3.0	7.1	47.7	14.4	0.9	2.1	2.9	1.7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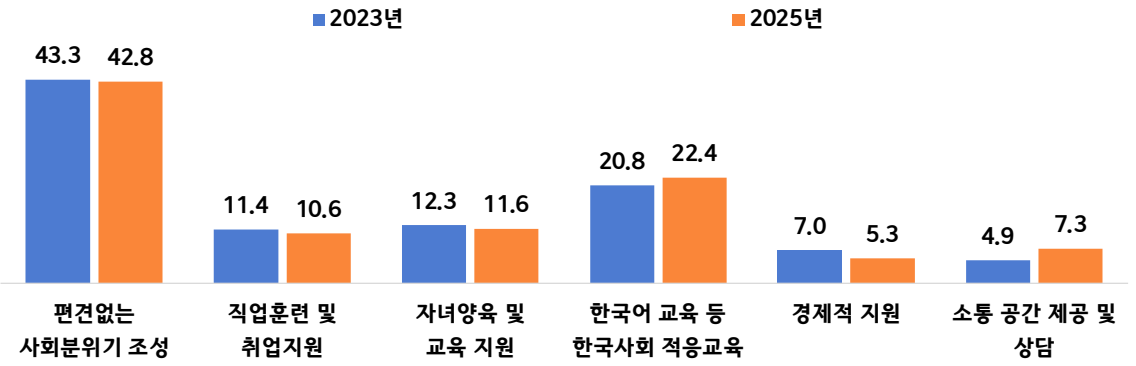
3 - 7. 다문화 가정의 사회통합

장성 군민 10명 중 4명이 생각하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책은 편견 없는 사회분위기 조성

- **다문화 가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편견 없는 사회분위기 조성**
  - 다문화 가정의 사회통합을 위해 '편견없는 사회분위기 조성'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42.8%로 가장 높으며, '한국어 교육 등 한국사회 적응교육'(22.4%),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11.6%) 순으로 나타남
  - '한국어 교육 등 한국사회 적응교육'(22.4%)과 '소통 공간 제공 및 상담'(7.3%)은 2023년(20.8%, 4.9%) 대비 각각 1.6%p, 2.4%p 증가함
- **다문화 가정의 사회통합 정책은 성별, 연령별 차이를 보임**
  - '편견없는 사회분위기 조성'은 남자(43.8%)가 여자(41.7%)보다 2.1%p 더 높게 나타나지만, '한국어 교육 등 한국사회 적응교육'은 여자(22.8%)가 남자(22.2%)보다 0.6%p 더 높게 나타남
  - 30~39세에서 '편견없는 사회분위기 조성'(49.5%)을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으며, 타 연령대 대비 4.3%p 이상 높게 나타남

<< 연도별 다문화 가정의 사회통합(기타 제외) >>

(단위 : %)



다문화 가정의 사회통합 (단위 : %)

구 분	계	편견없는 사회분위기 조성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	한국어 교육 등 한국사회 적응교육	경제적 지원	소통 공간 제공 및 상담	기타
2025년	100.0	42.8	10.6	11.6	22.4	5.3	7.3	0.1
2023년	100.0	43.3	11.4	12.3	20.8	7.0	4.9	0.3
< 성 별 >								
남자	100.0	43.8	10.2	10.7	22.2	6.6	6.5	0.1
여자	100.0	41.7	11.0	12.5	22.8	3.9	8.1	0.0
< 연 령 별 >								
15~29세	100.0	41.6	12.8	12.7	22.3	8.3	2.2	0.0
30~39세	100.0	49.5	4.1	12.6	23.3	0.0	9.8	0.7
40~49세	100.0	42.3	14.0	12.2	22.0	6.5	3.0	0.0
50~59세	100.0	45.2	7.8	12.5	23.1	3.7	7.7	0.0
60세 이상	100.0	41.0	11.4	10.6	22.2	5.8	8.9	0.0
65세 이상	100.0	40.8	12.0	10.0	21.7	6.4	9.2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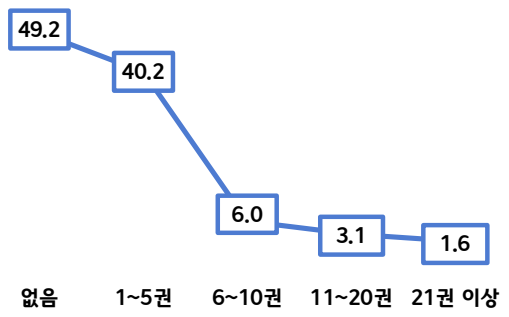
3 - 8. 독서여부 및 만족도

장성 군민의 연평균 독서량은 2.7권

- **군민 10명 중 5명은 지난 1년 동안 책을 읽음**
  - 지난 1년간 독서량에 대하여 '없음' 49.2%, '있음' 50.8%로 나타났으며, '있음'으로 응답한 군민 중 '1~5권'(40.2%), '6~10권'(6.0%), '11~20권'(3.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독서량에 대하여 '있음'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023년(47.6%) 대비 3.2%p 증가함
  - 연령별의 경우 30~39세를 제외하고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연평균 독서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15~29세가 5.0권으로 가장 많이 나타남
- **군민 절반 이상은 독서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함**
  - 독서량 만족 여부에 대하여 '부족하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57.0%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다'(32.7%), '충분하다'(10.3%) 순으로 나타남
- **장성 군민의 독서량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
  - 독서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군민 중 '책을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33.8%로 가장 높았고, '독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22.6%), '일이나 공부가 바빠서'(22.1%)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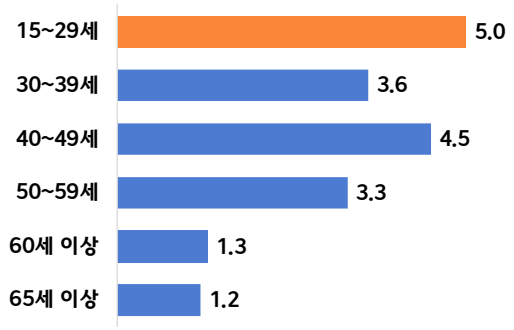
<< 독서량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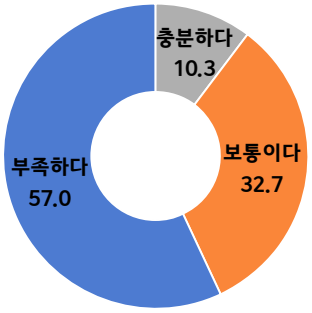
<< 연령별 독서량 평균 >>

(단위 :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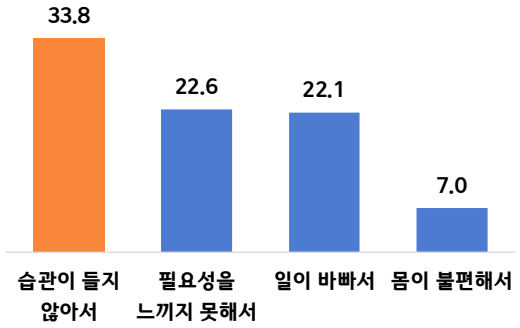
<< 독서량 만족여부 >>

(단위 : %)



<< 독서량 부족 이유(상위 4개 항목) >>

(단위 : %)



독서여부 및 만족도 - (1) 독서량 (단위 : 권, %)

구 분	평균	계	없음	1~5권	6~10권	11~20권	21~30권	31권 이상
2025년	2.7	100.0	49.2	40.2	6.0	3.1	0.7	0.9
2023년	2.8	100.0	52.4	36.3	6.3	3.6	0.5	0.8
<연령별>								
15~29세	5.0	100.0	13.7	59.0	15.4	11.9	0.0	0.0
30~39세	3.6	100.0	24.4	66.5	2.9	3.2	3.0	0.0
40~49세	4.5	100.0	23.2	59.9	12.2	1.5	0.0	3.1
50~59세	3.3	100.0	39.4	46.9	6.8	4.7	1.8	0.4
60세 이상	1.3	100.0	72.5	23.6	2.3	0.7	0.1	0.9
65세 이상	1.2	100.0	77.8	18.7	1.7	0.9	0.1	0.9

독서여부 및 만족도 - (2) 독서량 만족여부 (단위 : %)

구 분	계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충분한 편이다	보통이다	부족하다	부족한 편이다	매우 부족하다
2025년	100.0	10.3	4.0	6.3	32.7	57.0	33.3	23.6
2023년	100.0	9.3	3.3	6.0	34.7	56.0	31.9	24.0

독서여부 및 만족도 - (3) 독서량 부족 이유(다중응답)(계속) (단위 : %)

구 분	계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	일이나 공부가 바빠서	다른 여가활동을 즐기기에 바빠서	몸이 불편하여 책 읽기가 어려워서	어떤 책을 읽을지 몰라서
2025년	100.0	33.8	22.1	6.6	7.0	2.1
2023년	100.0	31.3	23.2	5.8	10.4	1.8

독서여부 및 만족도 - (3) 독서량 부족 이유(다중응답) (단위 : %)

구 분	읽을 만한 책이 없어서	책을 읽을 만한 장소가 없어서	책을 구입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책을 읽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독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기타
2025년	0.5	0.4	0.2	3.1	22.6	1.7
2023년	1.4	0.7	1.2	5.2	15.2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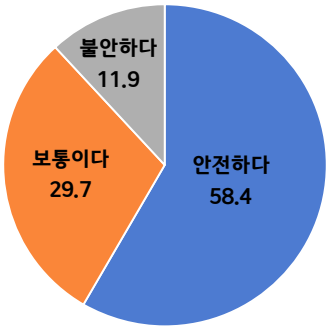
3 - 9. 야간활동 안전성

2023년 대비 야간활동이 안전하다는 응답 비율 증가

- **군민 절반 이상은 야간활동이 안전하다고 응답**
  - 야간활동 안전성에 대하여 '안전하다'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58.4%로 2023년(40.9%) 대비 17.5%p 증가하였고, '보통이다'(29.7%), '불안하다'(11.9%) 순으로 나타남
  - '안전하다'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북부권에서 66.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야간활동 및 보행에 불안한 주된 원인은 가로등이 없고 인적이 드물어서**
  - 야간활동이 '불안하다'라고 응답한 군민 중 불안한 원인으로 '가로등이 없어서' 53.2%, '인적이 드물어서' 44.3%로 나타났고, 특히 북부권과 서부권이 '가로등이 없어서'(67.8%, 63.9%)의 응답 비율이 높음
  - '가로등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자(61.7%)가 여자(46.4%)보다 15.3%p 더 높았고, '인적이 드물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자(52.2%)가 남자(34.3%)보다 17.9%p 더 높게 나타남
- **야간활동 및 보행에 대한 대처방법은 낮에 가거나 다음 기회로 미룸**
  - 대처방법으로 '낮에 가거나 다음 기회로 미룬다'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40.8%로 가장 높았고,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38.2%), '아는 사람과 동행한다'(7.7%) 순으로 나타남
  -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라고 응답한 북부권의 비율은 83.0%로 타 지역 대비 40.5%p 이상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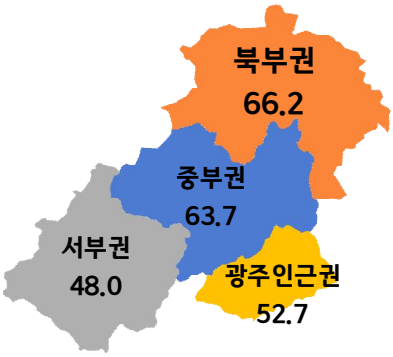
<< 야간활동 안전성>>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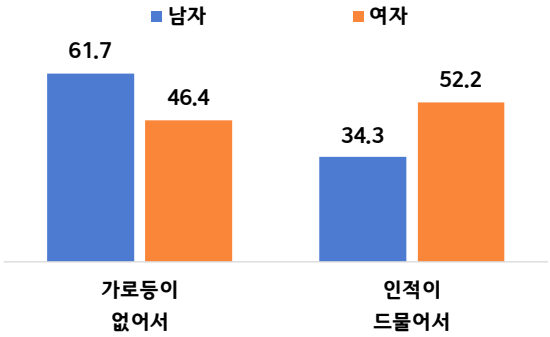
<< 지역별 야간활동 안전 응답률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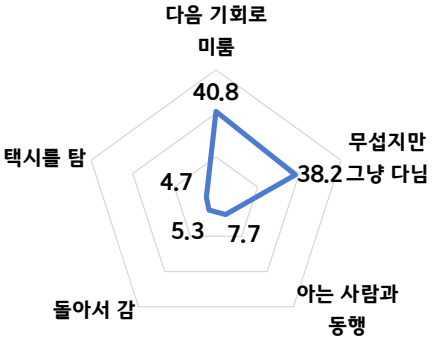
<< 성별 야간활동이 불안한 원인 >>

(단위 : %)



<< 야간활동 불안 대처방법(상위 5개 항목) >>

(단위 : %)



야간활동 안전성 - (1) 안전성 (단위 : %)

구 분	계	안전하다	매우 안전하다	비교적 안전하다	보통이다	불안하다	비교적 불안하다	매우 불안하다
2025년	100.0	58.4	18.8	39.6	29.7	11.9	9.3	2.6
2023년	100.0	40.9	14.1	26.8	40.7	18.4	13.7	4.7
〈지역별〉								
중부권	100.0	63.7	23.2	40.5	27.0	9.3	7.0	2.3
북부권	100.0	66.2	15.2	51.0	28.7	5.2	4.3	0.8
서부권	100.0	48.0	15.4	32.7	35.5	16.5	13.3	3.2
광주인근권	100.0	52.7	15.5	37.2	29.7	17.6	13.6	4.0

야간활동 안전성 - (2) 불안한 원인 (단위 : %)

구 분	계	가로등이 없어서	우범지역이므로	인적이 드물어서	기타
2025년	100.0	53.2	0.8	44.3	1.8
2023년	100.0	53.1	1.7	41.4	3.8
〈지역별〉					
중부권	100.0	41.4	2.3	53.0	3.3
북부권	100.0	67.8	0.0	32.2	0.0
서부권	100.0	63.9	0.0	36.1	0.0
광주인근권	100.0	51.6	0.0	45.9	2.4
〈성별〉					
남자	100.0	61.7	0.0	34.3	4.0
여자	100.0	46.4	1.4	52.2	0.0

야간활동 안전성 - (3) 대처방법 (단위 : %)

구 분	계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	조금 멀더라도 돌아서 간다	집 앞까지 택시를 탄다	아는 사람과 동행한다	낮에 가거나 다음 기회로 미룬다	호신도구를 가지고 다닌다	기타
2025년	100.0	38.2	5.3	4.7	7.7	40.8	2.1	1.1
2023년	100.0	46.0	5.5	4.3	8.0	28.3	1.9	6.1
〈지역별〉								
중부권	100.0	25.0	4.4	3.9	8.2	49.2	6.0	3.3
북부권	100.0	83.0	0.0	0.0	0.0	17.0	0.0	0.0
서부권	100.0	40.2	9.5	5.8	8.0	36.5	0.0	0.0
광주인근권	100.0	42.5	2.3	5.6	8.7	40.9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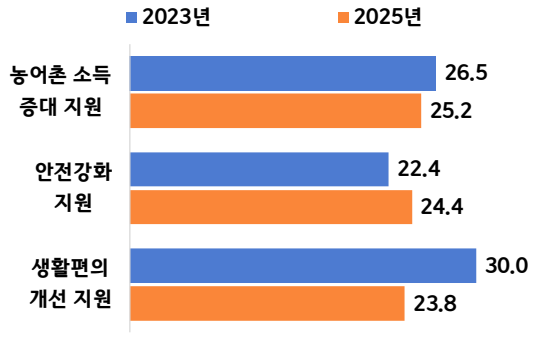
3 - 10. 디지털 전환 분야

장성군에 가장 필요한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은 농어촌 소득증대 지원

- **디지털 기술이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분야는 농어촌 소득증대 지원**
  - '농어촌 소득증대 지원'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5.2%로 가장 높았고, '생활 속 안전강화 지원'(24.4%), '생활편의 개선 지원'(23.8%)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의 경우 '농어촌 소득증대 지원'은 광주인근권이 31.4%, '생활 속 안전강화 지원'은 중부권이 27.5%로 높게 나타남
- **장성군의 발전을 위해 디지털 기술이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
  - 거주 지역 발전을 위해 디지털 기술이 필요한 분야로 '사회·복지 분야'라고 응답한 군민은 24.1%로 가장 높았고, '보건·의료 분야'(23.9%), '농림어업 분야'(14.9%)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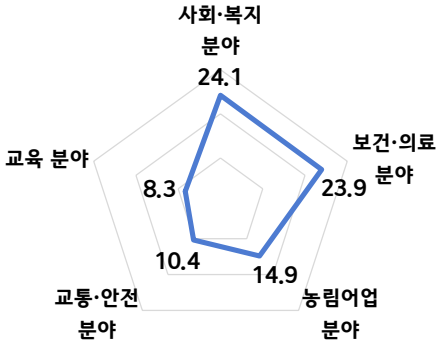
<< 연도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상위 3개 항목) >>

(단위 : %)



<< 디지털 기술 활용 분야(상위 5개 항목) >>

(단위 : %)



디지털 전환 분야 - (1) 지원 분야 (단위 : %)

구 분	계	농어촌 소득증대 지원	생활 속 안전강화 지원	생활편의 개선 지원	주민 생활시설 스마트화 지원	도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기타
2025년	100.0	25.2	24.4	23.8	14.4	12.1	0.1
2023년	100.0	26.5	22.4	30.0	11.7	8.7	0.6
< 지역별 >							
중부권	100.0	18.2	27.5	22.9	17.3	14.2	0.0
북부권	100.0	29.8	18.8	36.6	10.6	4.0	0.3
서부권	100.0	31.0	23.1	19.9	15.5	10.1	0.4
광주인근권	100.0	31.4	23.3	20.5	8.5	16.2	0.0

디지털 전환 분야 - (2) 디지털 기술 활용 분야(다중응답) (단위 : %)

구 분	계	농림 어업 분야	사회· 복지 분야	보건· 의료 분야	교육 분야	공공· 행정 분야	교통· 안전 분야	금융· 경제 분야	관광 분야	환경 분야	노동 분야	기타
2025년	100.0	14.9	24.1	23.9	8.3	6.2	10.4	4.4	3.3	3.2	1.1	0.1
2023년	100.0	16.1	21.8	23.8	9.7	5.2	10.2	2.3	3.6	5.9	1.3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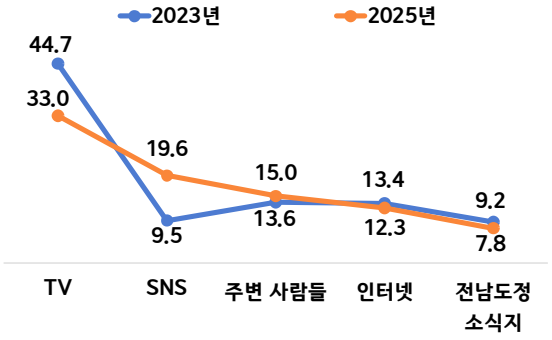
3 - 11. 행정정보 획득 매체

장성 군민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군정 정보 습득

- **군민 10명 중 3명은 TV로 전라남도 도정정보 습득**
  - 전라남도 도정정보를 습득하는 수단으로 'TV'가 33.0%로 가장 높았고, 'SNS'(19.6%), '주변 사람들'(15.0%) 순으로 나타남
  - 도정정보 습득 수단으로 'SNS'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023년(9.5%) 대비 10.1%p 증가함
  - 도정정보 습득 수단으로 'TV'라고 응답한 북부권의 비율은 43.6%로 타 지역 대비 10.0%p 이상 높음
- **군민이 군정 정보를 습득하는 주된 수단은 주변 사람들**
  - 군정 정보를 습득하는 수단으로 '주변 사람들'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7.8%로 가장 높았고, 'TV'(22.1%), '인터넷'(16.1%) , 'SNS'(15.0%) 순으로 나타남
  - '전광판, 게시판, 현수막 등'이라고 응답한 서부권의 비율은 22.5%로 타 지역 대비 16.7% 이상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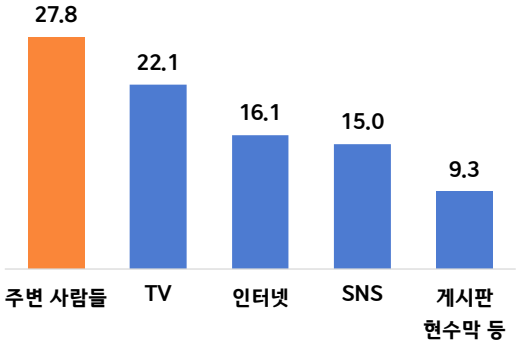
<< 연도별 도정정보 습득 수단(상위 5개 항목) >>

(단위 : %)



<< 군정 정보 습득 수단(상위 5개 항목) >>

(단위 : %)



행정정보 획득 매체 (단위 : %)

구 분	계	전남 도정·군정 소식지	TV	라디오	신문	전광판, 게시판, 현수막 등	인터넷	SNS	반상회보	주변 사람들	기타
(1) 전라남도 도정정보 습득 수단											
2025년	100.0	7.8	33.0	0.1	6.2	5.1	12.3	19.6	0.9	15.0	0.0
2023년	100.0	9.2	44.7	1.6	3.5	3.6	13.4	9.5	0.3	13.6	0.5
< 지역별 >											
중부권	100.0	6.8	33.5	0.2	7.6	3.5	14.2	20.4	1.0	12.8	0.0
북부권	100.0	8.9	43.6	0.3	5.3	2.3	4.4	23.4	0.5	11.4	0.0
서부권	100.0	9.8	24.8	0.2	3.8	11.3	12.6	18.7	0.3	18.4	0.0
광주인근권	100.0	6.7	33.6	0.0	6.6	3.0	13.9	15.7	1.5	19.0	0.0
(2) 군정 정보 습득 수단											
2025년	100.0	2.0	22.1	1.0	3.9	9.3	16.1	15.0	2.8	27.8	0.1
2023년	100.0	7.0	18.3	1.4	2.8	8.4	15.2	15.1	1.2	29.9	0.7
< 지역별 >											
중부권	100.0	1.5	18.9	0.8	6.0	5.8	17.4	19.8	2.9	26.8	0.0
북부권	100.0	1.7	43.6	3.1	4.3	4.1	4.1	8.5	3.4	27.3	0.0
서부권	100.0	2.8	10.9	0.6	0.0	22.5	17.6	11.4	2.0	31.9	0.3
광주인근권	100.0	2.3	27.2	0.4	3.2	4.6	20.8	12.9	3.1	25.4	0.0

4. 장성군 특성 항목

4 - 1. 인구감소 대응정책

4 - 2. 일자리 창출 활성화

4 - 3. 평생교육제도 만족도

4 - 4. 평생교육제도 선호도

4 - 5. 교육환경 개선

4 - 6. 보건소 이용 희망 서비스

4 - 7. 노인복지 정책

4 - 8. 관광 활성화 방안

4 - 9. 기대되는 관광사업

4 - 10. 교통환경 만족도

4 - 11. 전통시장 이용 실태

4 - 12.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

4 - 13. 주요 생활 관심사

4 - 14. 군정 관심 분야

4 - 15. 장성군 공식 S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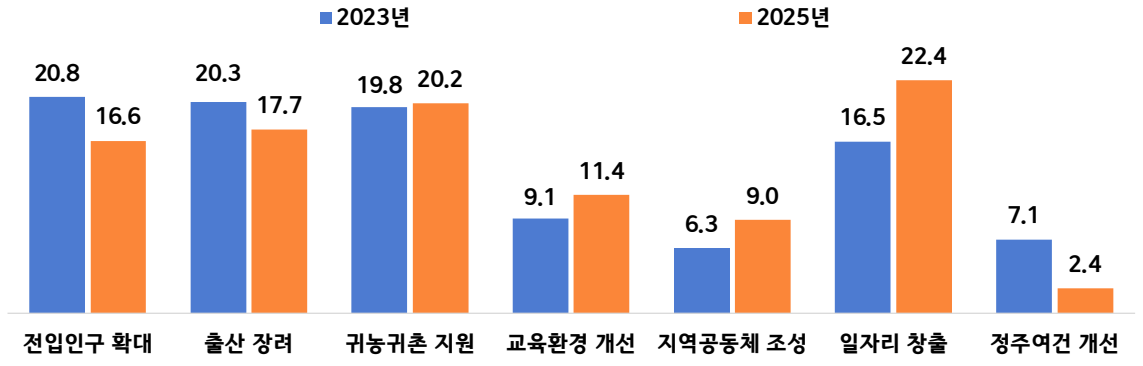
4 - 1. 인구감소 대응정책(다중응답)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

-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로 나타남**
  - 인구감소 대응정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이 22.4%로 가장 높았고, '귀농귀촌 지원'(20.2%), '출산 장려'(17.7%) 순으로 나타남
  - 가장 크게 증가한 항목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로 2023년(16.5%) 대비 5.9%p 증가함
- **인구감소 대응정책은 지역별 차이를 보임**
  - 중부권의 경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이 2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광주인근권의 경우 '출산 장려'가 20.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북부권과 서부권의 경우 '귀농귀촌 지원'이 각각 24.6%, 26.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도별 인구감소 대응정책(기타 제외) >>

(단위 : %)



인구감소 대응정책(다중응답) (단위 : %)

구 분	계	전입인구 확대	출산 장려	귀농귀촌 지원	교육정책 및 교육환경 개선	지역공동체 조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기타
2025년	100.0	16.6	17.7	20.2	11.4	9.0	22.4	2.4	0.3
2023년	100.0	20.8	20.3	19.8	9.1	6.3	16.5	7.1	-
< 지역별 >									
중부권	100.0	18.4	19.5	16.2	12.1	8.3	22.4	2.4	0.7
북부권	100.0	14.2	14.8	24.6	9.3	10.8	21.9	4.3	0.0
서부권	100.0	16.8	14.1	26.5	10.2	6.9	24.8	0.6	0.0
광주인근권	100.0	13.9	20.5	17.8	13.1	11.8	19.9	2.9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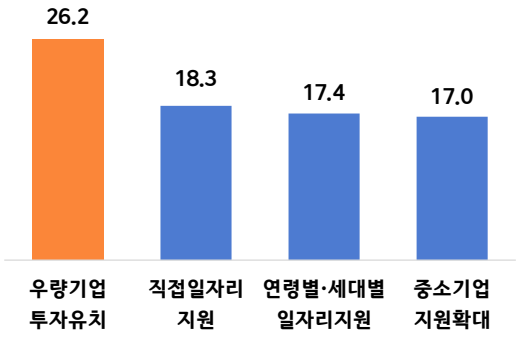
4 - 2. 일자리 창출 활성화(다중응답)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우량기업 투자유치

- **장성 군민은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우량기업 투자유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
  - 집중 추진 정책으로 '우량기업 투자유치'를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6.2%로 가장 높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지원'(18.3%), '연령별·세대별 일자리 지원사업'(17.4%) 순으로 나타남
-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은 지역별 차이를 보임**
  - 중부권, 서부권, 광주인근권의 경우 '우량기업 투자유치'가 각각 25.9%, 31.5%, 29.5%로 가장 높았던 반면, 북부권의 경우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지원'이 24.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관내 중소기업 지원 확대'라고 응답한 광주인근권의 비율은 23.3%로 타 지역 대비 7.4%p 이상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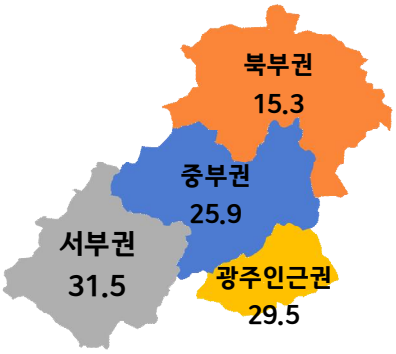
<< 일자리 창출 활성화(상위 4개 항목) >>

(단위 : %)



<< 지역별 일자리 창출 활성화(우량기업 투자유치) >>

(단위 : %)



일자리 창출 활성화(다중응답) (단위 : %)

구 분	계	우량기업 투자유치	관내 중소기업 지원 확대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지원	연령별·세대별 일자리 지원사업	취업 및 직업교육 훈련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지원 사업	기타
2025년	100.0	26.2	17.0	18.3	17.4	12.9	8.1	0.1
< 지 역 별 >								
중부권	100.0	25.9	15.7	17.0	18.9	13.4	9.2	0.0
북부권	100.0	15.3	14.7	24.6	19.4	14.9	11.1	0.0
서부권	100.0	31.5	15.9	18.9	14.6	12.8	6.0	0.3
광주인근권	100.0	29.5	23.3	15.7	15.7	10.1	5.7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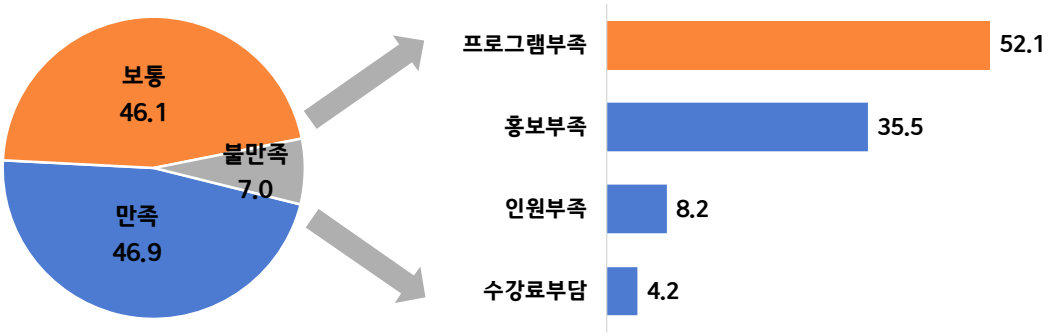
4 - 3. 평생교육제도 만족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만족 비율 2023년 대비 증가

-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군민 10명 중 9명은 대체로 만족**
  -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 있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20.8%로 나타남
  - 광주인근권에서 '참여한 적 있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17.3%로 타 지역 대비 3.6%p 이상 낮게 나타남
  -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중 평생교육제도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군민은 46.9%로 2023년(37.6%) 대비 9.3%p 증가하였으며, '보통' 46.1%, '불만족' 7.0%로 나타남
-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불만족하는 주된 이유는 교육프로그램 부족**
  -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불만족'하는 군민 중 52.1%는 '교육프로그램 부족'을, 35.5%는 '프로그램 일정 등 홍보 부족'을 불만족 이유로 응답함
  - 중부권과 서부권은 '교육프로그램 부족'(60.7%, 72.3%)을, 북부권과 광주인근권은 '프로그램 일정 등 홍보 부족'(85.2%, 100.0%)을 불만족 이유로 응답함
-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관심 부족**
  - '관심 부족' 45.1%이 가장 높았고, '시간 부족'(28.4%),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랐음'(11.0%) 순으로 나타남
  - 15~29세를 제외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관심 부족'의 응답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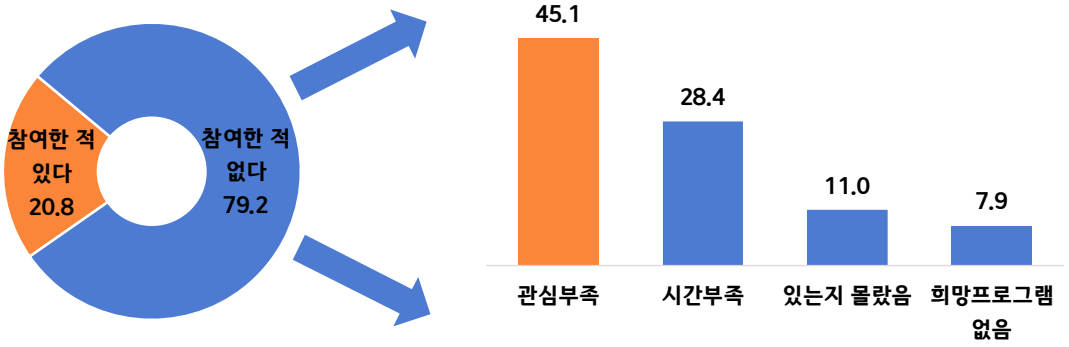
<< 평생교육제도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

(단위 : %)



<< 평생교육제도 참여 여부 및 미참여 이유(상위 4개 항목) >>

(단위 : %)



평생교육제도 만족도 - (1) 참여 여부 및 만족도 (단위 : %)

구 분	계	참여한 적 있다	소계	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불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참여한 적 없다
2025년	100.0	20.8	100.0	46.9	17.5	29.4	46.1	7.0	5.5	1.5	79.2
2023년	100.0	17.1	100.0	37.6	13.2	24.4	56.7	5.7	2.9	2.8	82.9
〈지역별〉											
중부권	100.0	21.9	100.0	44.3	18.4	26.0	48.7	7.0	7.0	0.0	78.1
북부권	100.0	21.1	100.0	52.2	22.2	29.9	39.6	8.2	1.2	7.0	78.9
서부권	100.0	20.9	100.0	44.0	16.7	27.3	47.3	8.7	6.6	2.0	79.1
광주인근권	100.0	17.3	100.0	54.8	10.9	43.8	42.1	3.2	3.2	0.0	82.7

평생교육제도 만족도 - (2) 불만족 이유 (단위 : %)

구 분	계	교육 프로그램 부족	프로그램 일정 등 홍보 부족	참여 가능 인원 부족	수강료에 대한 부담	기타
2025년	100.0	52.1	35.5	8.2	4.2	0.0
2023년	100.0	34.8	29.4	20.8	5.2	9.7
〈지역별〉						
중부권	100.0	60.7	30.3	0.0	9.1	0.0
북부권	100.0	14.8	85.2	0.0	0.0	0.0
서부권	100.0	72.3	0.0	27.7	0.0	0.0
광주인근권	100.0	0.0	100.0	0.0	0.0	0.0

평생교육제도 만족도 - (3) 미참여 이유 (단위 : %)

구 분	계	시간 부족	관심 부족	시설 접근성 문제	수강료에 대한 부담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없음	평생교육 프로그램 있는지 몰랐음
2025년	100.0	28.4	45.1	7.2	0.4	7.9	11.0
2023년	100.0	17.1	50.0	7.5	0.8	7.4	17.2
〈성별〉							
남자	100.0	31.4	44.6	5.2	0.3	8.3	10.0
여자	100.0	24.7	45.6	9.5	0.4	7.5	12.2
〈연령별〉							
15~29세	100.0	32.5	41.7	4.2	0.0	6.6	15.1
30~39세	100.0	46.8	34.6	8.3	0.0	3.9	6.4
40~49세	100.0	40.8	35.1	2.6	0.8	16.2	4.5
50~59세	100.0	42.7	38.7	3.8	0.0	8.6	6.1
60세 이상	100.0	16.2	52.2	10.0	0.6	7.0	14.0
65세 이상	100.0	11.8	53.4	11.2	0.8	7.4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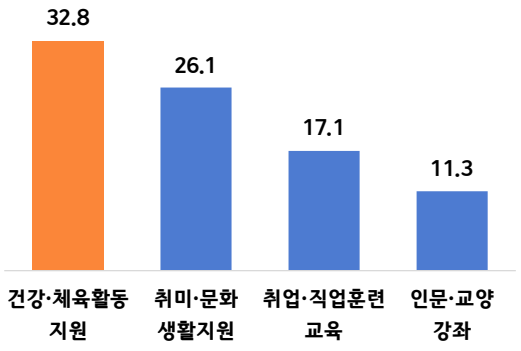
4 - 4. 평생교육제도 선호도

장성 군민이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건강·체육 활동

- **군민 10명 중 3명이 받아보고 싶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건강·체육 활동**
  - ‘건강·체육 활동 지원’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32.8%로 가장 높았고, ‘취미·문화생활 지원’(26.1%), ‘취업·직업훈련 교육’(17.1%) 순으로 나타남
  - 2023년 대비 가장 크게 증가한 항목은 ‘인문·교양 강좌’(11.3%)로 2023년(8.3%) 대비 3.0%p 증가함
- **평생교육제도 선호도는 성별, 연령별 차이를 보임**
  - 향후 받아보고 싶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취업·직업훈련 교육’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자(20.4%)가 여자(13.6%)보다 6.8%p 높게 나타난 반면, ‘취미·문화생활 지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자(29.9%)가 남자(22.4%)보다 7.5%p 높게 나타남
  - ‘취업·직업훈련 교육’은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건강·체육활동 지원’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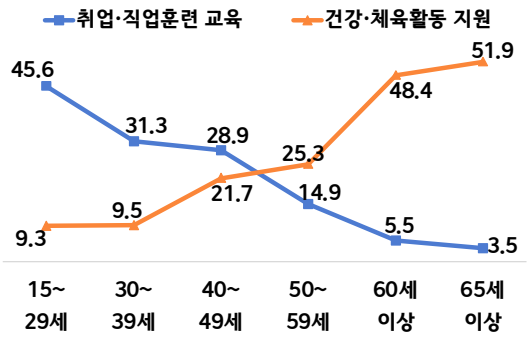
<< 평생교육제도 선호도(상위 4개 항목) >>

(단위 : %)



<< 연령별 평생교육제도 선호도 >>

(단위 : %)



평생교육제도 선호도 (단위 : %)

구 분	계	취업·직업 훈련 교육	인문·교양 강좌	기초 학력 및 한글교실	취미·문화 생활 지원	건강·체육 활동 지원	컴퓨터·정보화 교육	기타
2025년	100.0	17.1	11.3	4.7	26.1	32.8	7.5	0.5
2023년	100.0	16.6	8.3	4.0	28.1	34.1	6.7	2.2
< 성 별 >								
남자	100.0	20.4	11.8	1.8	22.4	35.7	7.6	0.3
여자	100.0	13.6	10.8	7.6	29.9	29.8	7.5	0.7
< 연 령 별 >								
15~29세	100.0	45.6	9.0	1.8	27.6	9.3	6.7	0.0
30~39세	100.0	31.3	22.3	0.9	33.2	9.5	2.8	0.0
40~49세	100.0	28.9	11.8	0.5	27.4	21.7	8.1	1.5
50~59세	100.0	14.9	15.2	0.5	31.9	25.3	12.3	0.0
60세 이상	100.0	5.5	8.3	8.7	21.9	48.4	6.6	0.6
65세 이상	100.0	3.5	6.3	10.7	21.2	51.9	6.0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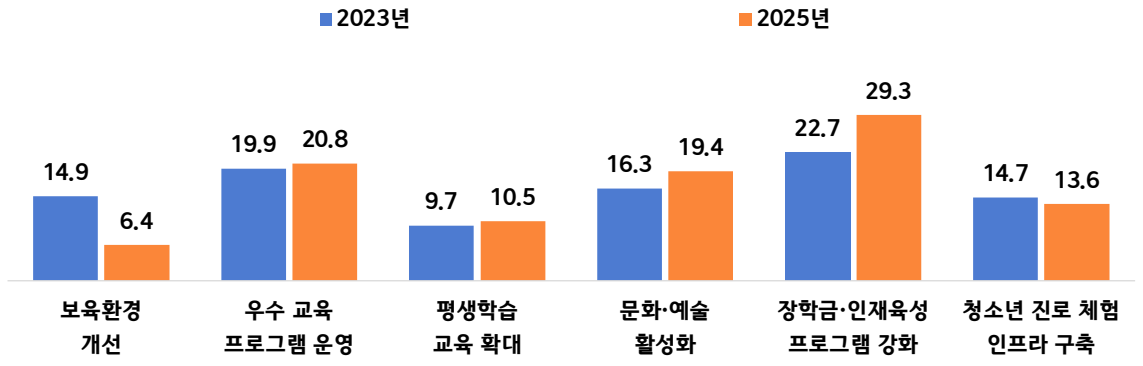
4 - 5. 교육환경 개선

교육환경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장학금·인재육성 프로그램 강화

- **장성 군민 10명 중 3명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장학금·인재육성 프로그램 강화를 원함**
  - ‘장학금·인재육성 프로그램 강화’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9.3%로 가장 높았고, ‘우수 교육 프로그램 운영’(20.8%), ‘문화·예술 활성화’(19.4%) 순으로 나타남
  - ‘장학금·인재육성 프로그램 강화’는 2023년(22.7%) 대비 6.6%p 증가하였고, 항목 중 가장 큰 폭으로 응답률이 증가함
  - ‘보육환경 개선’이라고 응답한 여자의 비율은 7.5%로 남자(5.3%) 대비 2.2%p 높게 나타남
-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연령별 차이를 보임**
  - 15~29세는 ‘문화·예술 활성화’(26.0%)를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응답함
  - 40~49세는 ‘우수 교육 프로그램 운영’(36.1%)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응답하였고, 타 연령대 대비 12.1%p 이상 높음

<< 연도별 교육환경 개선(기타 제외) >>

(단위 : %)



교육환경 개선 (단위 : %)

구 분	계	보육환경 개선	우수 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교육 확대	문화·예술 활성화	장학금·인재육성 프로그램 강화	청소년 진로 체험 인프라 구축	기타
2025년	100.0	6.4	20.8	10.5	19.4	29.3	13.6	0.0
2023년	100.0	14.9	19.9	9.7	16.3	22.7	14.7	1.7
< 성 별 >								
남자	100.0	5.3	20.6	11.5	20.6	28.0	14.0	0.0
여자	100.0	7.5	21.1	9.5	18.2	30.5	13.2	0.0
< 연 령 별 >								
15~29세	100.0	1.1	19.9	10.5	26.0	22.9	19.6	0.0
30~39세	100.0	10.2	18.9	8.0	15.0	33.6	14.3	0.0
40~49세	100.0	7.6	36.1	10.8	14.7	20.1	10.7	0.0
50~59세	100.0	2.6	24.0	11.2	19.7	26.7	15.8	0.0
60세 이상	100.0	8.1	16.5	10.6	19.6	33.2	11.9	0.0
65세 이상	100.0	7.9	15.8	11.2	17.0	36.3	11.8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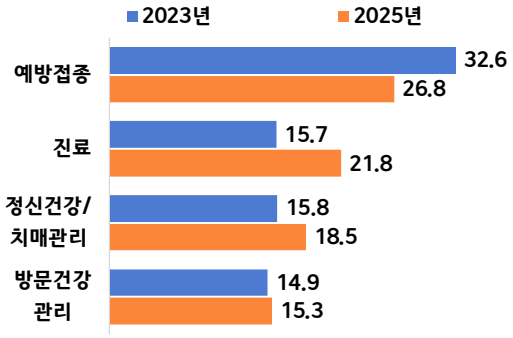
4 - 6. 보건소 이용 희망 서비스

보건소에서 가장 이용하고 싶은 의료서비스는 예방접종

- **군민이 희망하는 장성군 내 보건소 이용 희망 서비스 1순위는 예방접종**
  - ‘예방접종’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6.8%로 가장 높았고, ‘진료’(21.8%), ‘정신건강/치매관리’(18.5%) 순으로 나타남
  - 응답률이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은 ‘진료’로 2023년(15.7%) 대비 6.1%p 증가하였고, 두 번째로 많이 증가한 항목은 ‘정신건강/치매관리’로 2023년(15.8%) 대비 2.7%p 증가함
  - 응답률이 가장 많이 감소한 항목은 ‘예방접종’으로 2023년(32.6%) 대비 5.8%p 감소함
- **보건소 이용 희망 서비스에 대한 응답률은 연령별 차이를 보임**
  - ‘예방접종’과 ‘진료’는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응답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방문건강 관리’와 ‘정신건강/치매관리’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응답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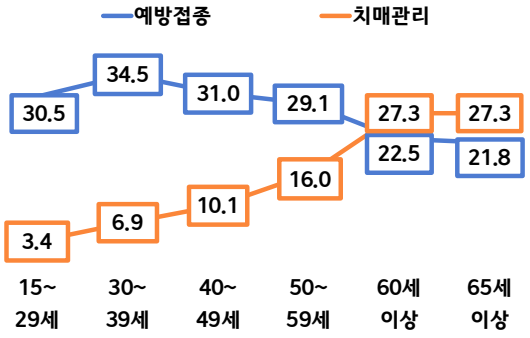
<< 보건소 이용 희망 서비스(상위 4개 항목) >>

(단위 : %)



<< 연령별 보건소 이용 희망 서비스 >>

(단위 : %)



보건소 이용 희망 서비스 (단위 : %)

구 분	계	예방접종	건강증진	모자보건	방문건강 관리	정신건강/ 치매관리	경로당 방문 보건사업	진료	기타
2025년	100.0	26.8	12.5	1.9	15.3	18.5	2.7	21.8	0.6
2023년	100.0	32.6	14.4	1.8	14.9	15.8	4.2	15.7	0.6
< 연령별 >									
15~29세	100.0	30.5	17.3	1.8	5.2	3.4	1.9	36.6	3.4
30~39세	100.0	34.5	14.4	5.9	8.4	6.9	0.0	29.1	0.7
40~49세	100.0	31.0	15.2	5.3	11.0	10.1	1.0	26.3	0.0
50~59세	100.0	29.1	15.4	0.4	14.6	16.0	1.7	22.8	0.0
60세 이상	100.0	22.5	9.2	0.9	20.2	27.3	4.2	15.3	0.3
65세 이상	100.0	21.8	8.2	0.7	22.8	27.3	5.1	13.8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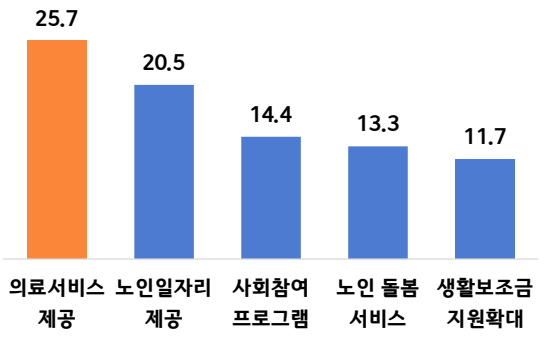
4 - 7. 노인복지 정책

노인복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의료서비스 제공

- **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노인 일자리 제공**
  - ‘의료서비스 제공’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5.7%로 가장 높았고, ‘노인 일자리 제공’(20.5%), ‘여가활동 및 사회 참여 프로그램 확대’(14.4%) 순으로 나타남
  - 가장 크게 증가한 항목은 ‘노인 돌봄 서비스’(13.3%)로 2023년(9.6%) 대비 3.7%p 증가함
  - 가장 크게 감소한 항목은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확대’로 2023년(21.0%) 대비 6.6%p 감소함
- **노인복지 정책은 연령별 차이를 보임**
  - 49세 이하까지는 ‘의료 서비스 제공’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반면, 50세 이상부터는 ‘의료 서비스 제공’과 ‘노인 일자리 제공’의 응답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남
  - 65세 이상 군민 중 ‘노인 돌봄 서비스’라고 응답한 군민은 17.0%로 타 연령대 대비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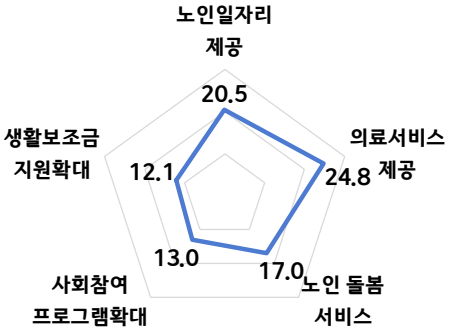
<< 노인복지 정책(상위 5개 항목) >>

(단위 : %)



<< 65세 이상 노인복지 정책(상위 5개 항목) >>

(단위 : %)



노인복지 정책 (단위 : %)

구 분	계	노인 일자리 제공	의료 서비스 제공	여가활동 및 사회 참여 프로그램 확대	정보화 등 각종 교육기회 제공	노인복지 시설 확충	노인 돌봄 서비스	생활안정 보조금 지원확대	기타
2025년	100.0	20.5	25.7	14.4	7.8	6.3	13.3	11.7	0.2
2023년	100.0	19.1	27.4	21.0	5.1	8.6	9.6	8.9	0.2
< 연령별 >									
15~29세	100.0	22.3	27.6	6.0	12.7	6.1	11.2	14.2	0.0
30~39세	100.0	11.7	33.2	24.9	8.8	7.0	7.6	6.9	0.0
40~49세	100.0	21.6	30.4	13.7	6.7	1.9	9.9	14.7	1.0
50~59세	100.0	21.6	22.3	15.3	11.2	6.2	13.9	9.4	0.0
60세 이상	100.0	21.0	24.1	14.5	5.4	7.4	15.4	12.0	0.1
65세 이상	100.0	20.5	24.8	13.0	4.8	7.7	17.0	12.1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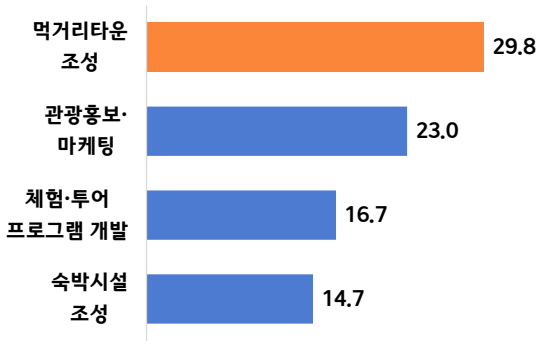
4 - 8. 관광 활성화 방안(다중응답)

장성군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된 정책은 먹거리타운 조성

- **군민 10명 중 3명이 희망하는 관광 활성화 방안은 먹거리타운 조성**
  -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먹거리타운 조성'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29.8%로 가장 높았고, '관광 홍보·마케팅'(23.0%), '체험·투어 프로그램 개발'(16.7%), '숙박시설 조성'(14.7%) 순으로 나타남
  - 2025년의 응답 비율은 2023년과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남
- **관광 활성화 방안은 지역별, 성별 차이를 보임**
  - 중부권에서의 '먹거리타운 조성' 응답률은 31.9%로 타 지역 대비 2.4%p 이상 높음
  - '먹거리타운 조성' 다음으로 중부권, 북부권, 서부권의 경우 '관광 홍보·마케팅'(23.9%, 25.6%, 25.6%)을 높게 응답하였으며, 광주인근권의 경우 '체험·투어 프로그램 개발'(22.5%)을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응답함
  - 성별의 경우 '먹거리타운 조성' 응답 비율은 여자(31.2%)가 남자(28.6%) 대비 2.6%p 높게 나타난 반면, '관광자원 발굴'은 남자(8.6%)가 여자(6.0%) 대비 2.6%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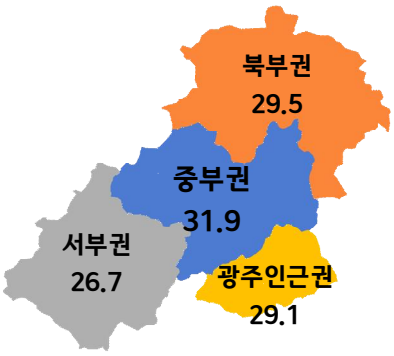
<< 관광 활성화 방안(상위 4개 항목) >>

(단위 : %)



<< 지역별 관광 활성화 방안(먹거리타운 조성) >>

(단위 : %)



관광 활성화 방안(다중응답) (단위 : %)

구 분	계	관광 홍보·마케팅	숙박시설 조성	먹거리타운 조성	체험·투어 프로그램 개발	교통 인프라 확충	관광자원 발굴	기타
2025년	100.0	23.0	14.7	29.8	16.7	8.3	7.3	0.2
2023년	100.0	22.1	14.4	31.5	15.5	7.9	8.2	0.4
< 지역별 >								
중부권	100.0	23.9	16.6	31.9	13.3	6.5	7.5	0.3
북부권	100.0	25.6	15.6	29.5	15.8	9.5	3.9	0.1
서부권	100.0	25.6	11.3	26.7	19.1	9.1	7.9	0.2
광주인근권	100.0	15.2	13.6	29.1	22.5	10.3	9.1	0.1
< 성별 >								
남자	100.0	23.4	13.6	28.6	17.2	8.5	8.6	0.2
여자	100.0	22.5	15.9	31.2	16.1	8.0	6.0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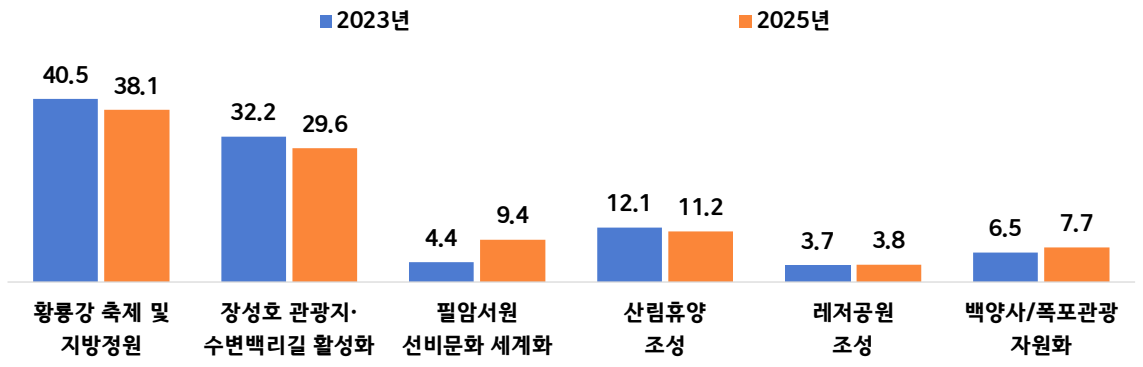
4 - 9. 기대되는 관광사업(다중응답)

군민이 가장 기대하는 관광사업은 황룡강 축제 및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

- **장성군이 추진하는 관광사업 중 가장 기대되는 사업은 황룡강 관련 관광사업**
  - '황룡강 축제 및 황룡강 지방정원'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38.1%로 가장 높았고, '장성호 관광지·수변백리길 활성화'(29.6%), '산림휴양지 조성'(11.2%) 순으로 나타남
  -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은 '필암서원 선비문화 세계화'(9.4%)로 2023년(4.4%) 대비 5.0%p 증가함
- **기대되는 관광사업은 연령별 차이를 보임**
  - '레저공원 조성'의 응답률은 15~29세가 7.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응답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황룡강 축제 및 황룡강 지방정원'의 응답률 또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응답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연도별 기대되는 관광사업(기타 제외) >>

(단위 : %)



기대되는 관광사업(다중응답) (단위 : %)

구 분	계	황룡강 축제 황룡강 지방정원	장성호 관광지·수변백리길 활성화	필암서원 선비문화 세계화	산림휴양지 조성	레저공원 조성	백양사·물통골 폭포 관광 자원화	기타
2025년	100.0	38.1	29.6	9.4	11.2	3.8	7.7	0.3
2023년	100.0	40.5	32.2	4.4	12.1	3.7	6.5	0.6
< 연령별 >								
15~29세	100.0	47.3	25.4	6.0	7.2	7.7	5.9	0.6
30~39세	100.0	35.7	33.8	11.2	7.7	4.5	6.6	0.5
40~49세	100.0	36.6	32.2	7.3	13.8	4.9	5.0	0.3
50~59세	100.0	33.6	28.8	12.4	12.6	3.4	8.8	0.3
60세 이상	100.0	38.3	29.5	9.3	11.6	2.6	8.5	0.2
65세 이상	100.0	39.3	29.5	8.6	10.7	2.3	9.6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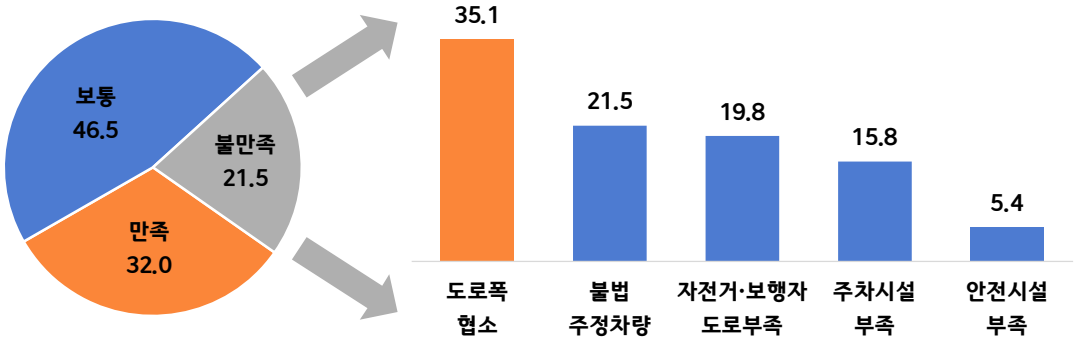
4 - 10. 교통환경 만족도

2023년 대비 2025년 장성군의 교통환경 만족 비율 증가

- **군민 절반 이상은 교통환경 만족도가 보통 이상**
  - 교통환경 만족도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32.0%, '보통'은 46.5%로 나타남
  - '만족'한다고 응답한 군민은 2023년(27.5%) 대비 4.5%p 증가함
  - 지역별의 경우 '만족'의 응답률이 북부권에서 43.7%로 타 지역 대비 11.6%p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불만족' 응답률은 9.5%로 11.9%p 이상 낮게 나타남
- **교통환경에 불만족하는 주된 이유는 도로폭 협소**
  - 교통환경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군민 중 35.1%는 '도로폭 협소'를, 21.5%는 '도로 위 불법 주정차량'을, 19.8%는 '자전거·보행자 전용도로 부족'을 불만족하는 이유로 응답함
  - '도로폭 협소' 응답률은 2023년(32.9%) 대비 2.2%p 증가함
- **불만족하는 이유는 지역별 차이를 보임**
  - 서부권의 경우 '도로폭 협소' 응답률이 13.9%로 타 지역 대비 28.2%p 이상 낮게 나타났으며, '자전거·보행자 전용도로 부족'과 '도로 위 불법 주정차량'이 각각 25.3%, 24.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도로폭 협소' 응답률은 북부권이 49.8%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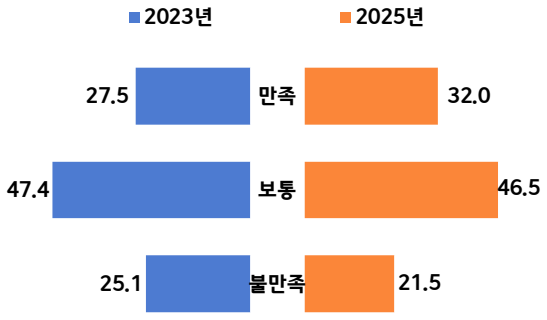
<< 교통환경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기타 제외)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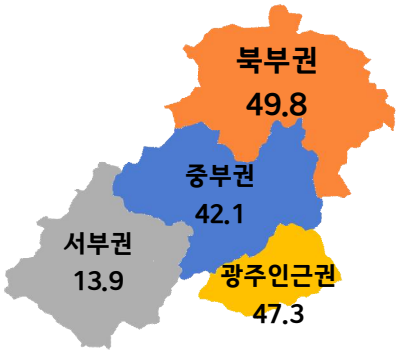
<< 연도별 교통환경 만족도 >>

(단위 : %)



<< 지역별 도로폭 협소 응답률 >>

(단위 : %)



교통환경 만족도 - (1) 만족도 (단위 : %)

구 분	계	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불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2025년	100.0	32.0	10.9	21.1	46.5	21.5	15.9	5.6
2023년	100.0	27.5	10.1	17.3	47.4	25.1	19.3	5.8
〈지역별〉								
중부권	100.0	32.1	13.3	18.8	46.5	21.4	16.5	4.9
북부권	100.0	43.7	10.7	33.0	46.7	9.5	6.8	2.7
서부권	100.0	26.1	8.4	17.6	46.5	27.4	21.5	5.9
광주인근권	100.0	29.7	8.0	21.7	46.4	23.9	14.7	9.2
〈연령별〉								
15~29세	100.0	24.0	5.1	18.9	51.6	24.4	15.3	9.1
30~39세	100.0	26.8	4.9	22.0	42.2	30.9	22.9	8.1
40~49세	100.0	24.8	9.4	15.4	41.8	33.3	22.5	10.8
50~59세	100.0	31.3	10.4	20.8	46.5	22.3	16.4	5.8
60세 이상	100.0	36.8	13.9	23.0	47.2	16.0	13.1	2.9
65세 이상	100.0	34.4	13.1	21.4	50.0	15.6	12.7	2.9

교통환경 만족도 - (2) 불만족 이유 (단위 : %)

구 분	계	도로폭 협소	도로 위 불법 주정차량	교통 안전시설 부족	주차시설 부족	자전거·보행자 전용도로 부족	기타
2025년	100.0	35.1	21.5	5.4	15.8	19.8	2.4
2023년	100.0	32.9	21.5	5.2	21.7	13.1	5.6
〈지역별〉							
중부권	100.0	42.1	19.7	3.3	12.9	20.8	1.2
북부권	100.0	49.8	18.6	13.5	18.1	0.0	0.0
서부권	100.0	13.9	24.9	8.9	22.7	25.3	4.4
광주인근권	100.0	47.3	21.2	1.8	10.8	15.9	3.0
〈성별〉							
남자	100.0	33.6	21.3	4.8	18.8	17.6	3.9
여자	100.0	36.9	21.7	6.0	12.2	22.6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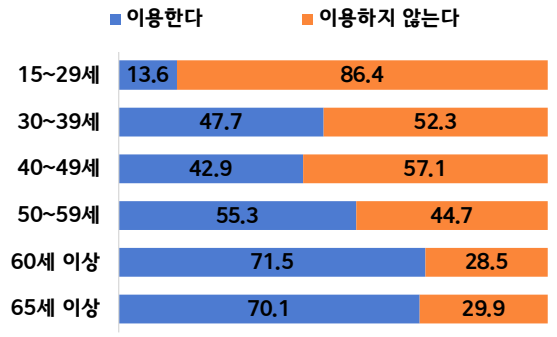
4 - 11. 전통시장 이용 실태

군민 절반 이상은 전통시장을 이용

- **한 달에 한 번 이상 전통시장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023년 대비 증가**
  - 전통시장을 '이용한다'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56.1%로 2023년(54.2%) 대비 1.9%p 증가함
  - '이용한다'라고 응답한 여자의 비율은 61.5%로 남자(50.9%) 대비 10.6%p 더 높게 나타남
  - 60세 이상의 전통시장 이용률이 7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이용률이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다양하지 않은 물품**
  -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군민 중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다양하지 않은 물품'이 42.3%로 가장 높았고, '구매방법 불편'(23.9%), '접근성이 떨어짐'(16.6%) 순으로 나타남
  - '구매방법 불편'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023년(17.0%) 대비 6.9%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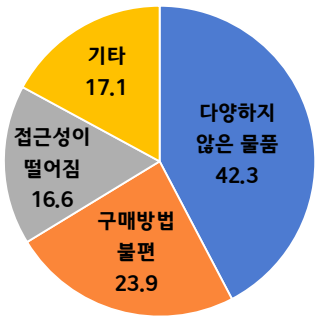
<< 연령별 전통시장 이용 실태 >>

(단위 : %)



<<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

(단위 : %)



전통시장 이용 실태 (단위 : %)

구 분	계	이용한다	이용하지 않는다	소계	접근성이 떨어짐	다양하지 않은 물품	불친절·비위생	편의시설 부족 시설 노후화	구매방법 불편	기타
2025년	100.0	56.1	43.9	100.0	16.6	42.3	2.3	5.2	23.9	9.6
2023년	100.0	54.2	45.8	100.0	23.5	41.6	3.6	2.7	17.0	11.6
< 성 별 >										
남자	100.0	50.9	49.1	100.0	15.0	43.4	2.5	4.9	25.9	8.3
여자	100.0	61.5	38.5	100.0	18.8	41.0	2.0	5.6	21.4	11.3
< 연 령 별 >										
15~29세	100.0	13.6	86.4	100.0	6.1	57.7	2.2	3.3	25.7	5.0
30~39세	100.0	47.7	52.3	100.0	18.8	40.9	7.9	7.3	14.7	10.4
40~49세	100.0	42.9	57.1	100.0	29.4	35.4	0.8	4.3	26.7	3.4
50~59세	100.0	55.3	44.7	100.0	11.4	45.5	2.9	4.7	25.2	10.2
60세 이상	100.0	71.5	28.5	100.0	20.7	32.7	0.9	6.7	23.5	15.4
65세 이상	100.0	70.1	29.9	100.0	18.1	32.9	1.1	6.8	22.9	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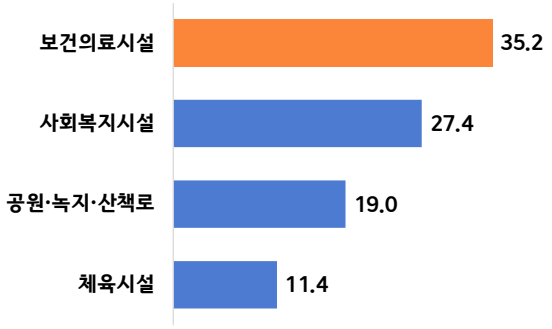
4 - 12.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

향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은 보건의료시설

- **장성 군민 10명 중 4명은 향후 보건의료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
  - ‘보건의료시설’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35.2%로 가장 높았고, ‘사회복지시설’(27.4%), ‘공원·녹지·산책로’(19.0%) 순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023년(18.1%) 대비 9.3%p 증가함
-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은 지역별, 연령별 차이를 보임**
  - 북부권에서의 ‘보건의료시설’ 응답률은 48.5%로 타 지역 대비 11.9%p 이상 높게 나타남
  - ‘보육시설’ 응답률은 30~39세에서 13.2%로 타 연령대 대비 높게 나타남
  - ‘사회복지시설’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응답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체육시설’은 연령대 낮아질수록 응답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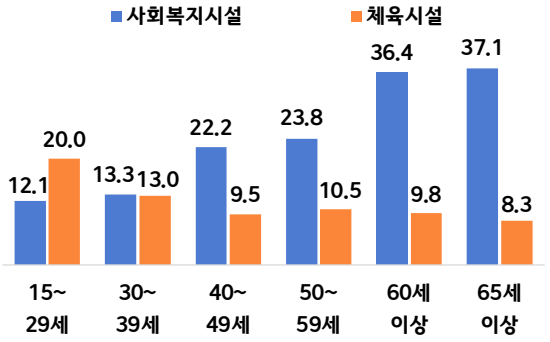
<<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상위 4개 항목) >>

(단위 : %)



<< 연령별 사회복지시설과 체육시설 응답률 >>

(단위 : %)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 (단위 : %)

구 분	계	보육시설	공원·녹지·산책로	보건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체육시설	기타
2025년	100.0	4.6	19.0	35.2	27.4	1.6	11.4	0.8
2023년	100.0	7.0	25.0	37.4	18.1	2.7	8.2	1.7
< 지역별 >								
중부권	100.0	4.7	17.7	31.3	29.6	1.8	13.8	1.1
북부권	100.0	6.8	9.9	48.5	22.3	1.1	11.2	0.3
서부권	100.0	3.5	22.8	36.6	26.2	0.8	9.7	0.3
광주인근권	100.0	3.9	25.1	31.7	27.9	2.8	7.6	1.1
< 연령별 >								
15~29세	100.0	1.1	30.9	31.6	12.1	2.1	20.0	2.1
30~39세	100.0	13.2	27.9	30.3	13.3	1.6	13.0	0.7
40~49세	100.0	7.0	19.5	38.2	22.2	1.5	9.5	2.1
50~59세	100.0	4.8	22.7	35.2	23.8	2.0	10.5	1.0
60세 이상	100.0	3.2	13.0	36.2	36.4	1.4	9.8	0.1
65세 이상	100.0	2.8	13.3	36.9	37.1	1.5	8.3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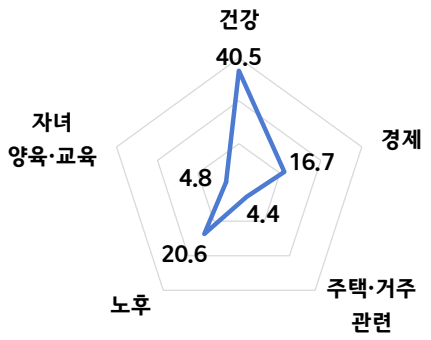
4 - 13. 주요 생활 관심사(다중응답)

군민의 현재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건강과 노후

- **장성 군민 10명 중 4명의 주된 관심사는 건강**
  - 현재 가장 중요한 관심사에 대하여 '건강'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40.5%로 가장 높았고, '노후'(20.6%), '경제'(16.7%) 순으로 나타남
  - '건강'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023년(37.1%) 대비 3.4%p 증가함
- **주요 생활 관심사는 연령별 차이를 보임**
  - '취업'과 '학업·진학'에서는 15~29세가 각각 18.0%, 18.1%로 타 연령대 대비 특히 더 높게 나타남
  - '자녀 양육·교육'에서는 30~39세와 40~49세가 각각 15.7%, 19.8%로 타 연령대 대비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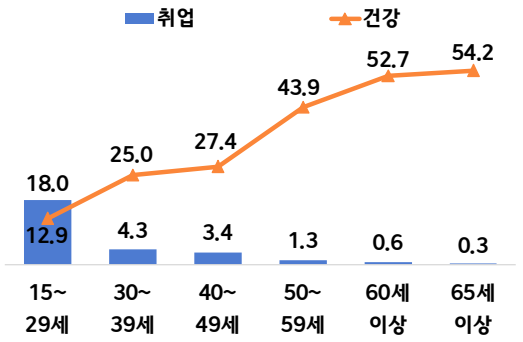
<< 주요 생활 관심사(상위 5개 항목) >>

(단위 : %)



<< 연령별 취업과 건강 응답률 >>

(단위 : %)



주요 생활 관심사(다중응답) (단위 : %)

구 분	계	건강	경제	주택·거주 관련	취업	노후	결혼	학업·진학	자녀 양육·교육	취미·여가 생활	기타
2025년	100.0	40.5	16.7	4.4	3.5	20.6	3.0	2.8	4.8	3.6	0.1
2023년	100.0	37.1	11.5	7.2	3.2	22.7	3.1	3.7	5.8	5.7	0.2
< 연 령 별 >											
15~29세	100.0	12.9	21.7	6.0	18.0	2.0	10.6	18.1	1.9	8.9	0.0
30~39세	100.0	25.0	23.9	6.9	4.3	6.6	6.8	4.1	15.7	6.6	0.0
40~49세	100.0	27.4	18.9	9.4	3.4	13.4	2.6	0.9	19.8	4.3	0.0
50~59세	100.0	43.9	16.6	3.5	1.3	26.1	1.4	0.0	3.4	3.6	0.2
60세 이상	100.0	52.7	13.4	2.6	0.6	27.7	1.1	0.2	0.2	1.5	0.1
65세 이상	100.0	54.2	12.6	3.0	0.3	27.3	0.8	0.1	0.3	1.4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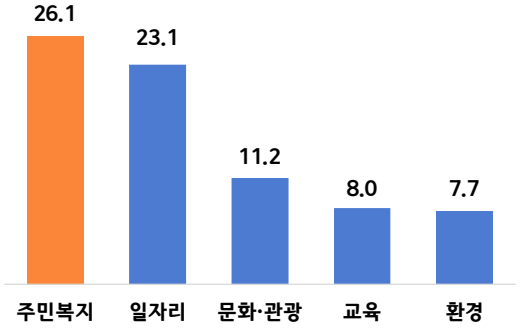
4 - 14. 군정 관심 분야(다중응답)

장성 군민의 주된 관심 분야는 주민복지

- **군민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군정 주요 분야 1순위는 주민복지**
  - ‘주민복지’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6.1%로 가장 높았고, ‘일자리’(23.1%), ‘문화·관광’(11.2%) 순으로 나타남
  - 2023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은 ‘일자리’로 2023년(17.1%) 대비 6.0%p 증가함
- **군정 관심 분야는 지역별, 성별 차이를 보임**
  - 중부권에서는 ‘주민복지’(23.3%)보다 ‘일자리’(25.8%)의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남
  - 북부권에서는 ‘농업·농촌’과 ‘안전’의 응답률이 각각 13.3%, 10.5%로 타 지역 대비 높게 나타남
  - 성별의 응답률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주민복지’로 여자(27.3%)가 남자(24.9%)보다 2.4%p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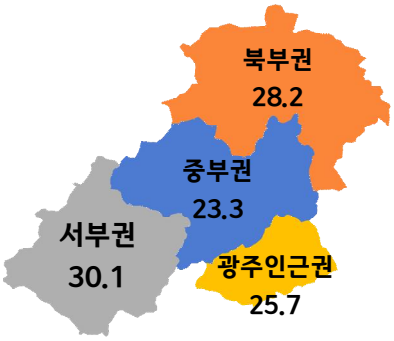
<< 군정 관심 분야(상위 5개 항목) >>

(단위 : %)



<< 지역별 주민복지 응답률 >>

(단위 : %)



군정 관심 분야(다중응답) (단위 : %)

구 분	계	일자리	주민복지	문화·관광	농업·농촌	교육	교통	환경	안전	보건	기타
2025년	100.0	23.1	26.1	11.2	7.6	8.0	4.4	7.7	6.0	5.7	0.1
2023년	100.0	17.1	28.9	12.2	7.7	8.8	4.5	7.1	6.2	7.6	0.1
< 지역별 >											
중부권	100.0	25.8	23.3	10.6	4.9	9.9	3.6	9.3	6.1	6.7	0.0
북부권	100.0	15.7	28.2	8.9	13.3	5.2	4.5	7.6	10.5	6.0	0.0
서부권	100.0	21.8	30.1	13.2	7.7	7.8	6.4	5.1	3.0	5.0	0.0
광주인근권	100.0	24.6	25.7	12.2	9.4	6.1	3.5	7.6	6.2	4.4	0.4
< 성별 >											
남자	100.0	23.0	24.9	11.2	8.1	8.7	4.6	7.7	6.0	5.6	0.1
여자	100.0	23.2	27.3	11.3	7.1	7.3	4.0	7.8	6.0	5.9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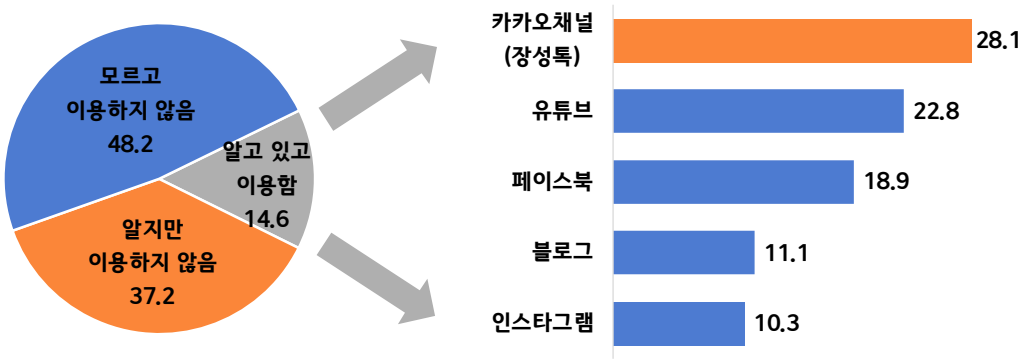
4 - 15. 장성군 공식 SNS

군민이 이용하고 있는 장성군 SNS는 카카오채널

- **군민 10명 중 5명은 장성군에서 운영하는 공식 SNS를 알고 있음**
  - 장성군 공식 SNS를 '알고 있고 이용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14.6%, '알고 있지만 이용하지 않는다' 37.2%, '알고 못하고 이용하지 않는다' 48.2%로 나타남
  - '알고 있지만 이용하지 않는다' 응답률은 2023년(24.2%) 대비 13.0%p 증가함
- **공식 SNS 인지 여부에 대한 응답률은 연령별 차이를 보임**
  - '알지 못하고 이용하지 않는다'의 응답률은 15~29세와 30~39세를 제외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응답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군민이 주로 이용하는 공식 SNS는 카카오채널(장성톡)**
  - 공식 SNS를 이용하고 있는 군민 중 '카카오채널(장성톡)'을 이용하고 있는 군민의 비율은 28.1%로 가장 높았고, '유튜브'(22.8%), '페이스북'(18.9%) 순으로 나타남
- **이용하는 공식 SNS에 대한 응답률은 연령별 차이를 보임**
  - 15~29세는 '페이스북'(32.5%)을, 30~39세는 '블로그'(23.9%)를, 50~59세는 '유튜브'(40.8%)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카카오채널'을 가장 많이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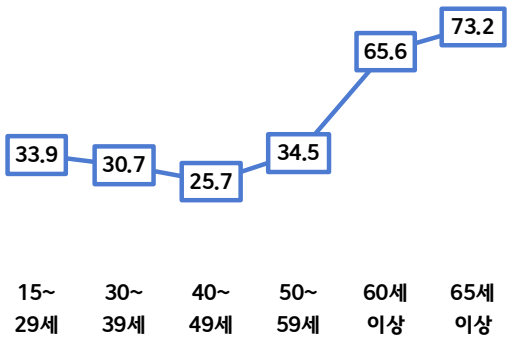
<< 장성군 공식 SNS 인지 여부 및 이용하는 공식 SNS(상위 5개 항목)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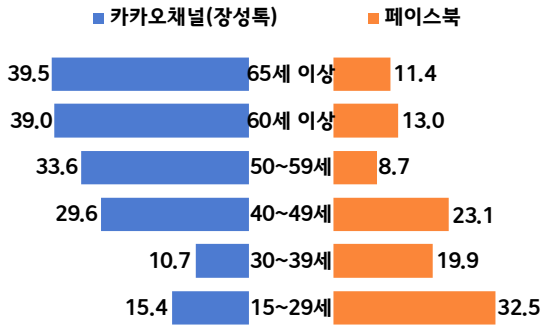
<< 연령별 알지 못하고 이용하지 않는다 응답률 >>

(단위 : %)



<< 연령별 카카오채널과 페이스북 응답률 >>

(단위 : %)



장성군 공식 SNS - (1) 인지 여부 (단위 : %)

구 분	계	알고 있고 이용하고 있다	알고 있지만 이용하지 않는다	알지 못하고 이용하지 않는다
2025년	100.0	14.6	37.2	48.2
2023년	100.0	16.0	24.2	59.8
〈 연 령 별 〉				
15~29세	100.0	17.5	48.6	33.9
30~39세	100.0	17.0	52.2	30.7
40~49세	100.0	36.7	37.5	25.7
50~59세	100.0	19.9	45.7	34.5
60세 이상	100.0	6.0	28.4	65.6
65세 이상	100.0	3.7	23.1	73.2

장성군 공식 SNS - (2) 이용하는 공식 SNS(다중응답) (단위 : %)

구 분	계	카카오채널 (장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2025년	100.0	28.1	18.9	10.3	22.8	11.1	8.8
2023년	100.0	35.1	10.2	16.7	20.7	13.4	3.9
〈 연 령 별 〉							
15~29세	100.0	15.4	32.5	12.4	18.6	16.5	4.6
30~39세	100.0	10.7	19.9	23.3	15.6	23.9	6.6
40~49세	100.0	29.6	23.1	14.5	13.4	9.4	10.0
50~59세	100.0	33.6	8.7	3.3	40.8	4.6	9.0
60세 이상	100.0	39.0	13.0	0.0	26.7	11.1	10.2
65세 이상	100.0	39.5	11.4	0.0	26.7	17.1	5.3